



신석초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石州詩文集

석초시문집



서천문화원 



신석초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石艸詩文集

서천문화원

|| 차례 ||

시 詩

1. 바라춤

- 돌팔매 011
춤추는 여신 女神 012
검무랑 劍舞娘 014
과초 芭蕉 015
뱀 016
시름하는 꽃가지 019
멸 滅하지 않는 것 021
화장 化粧 022
호접 蝴蝶 023
무녀 巫女의 춤 024
밀도 蜜桃를 준다 025
연 蓮꽃 026
규녀 閨女 027
비취단장 翡翠斷章 028
바라춤 서사 序詞 031
바라춤 036

2. 서라벌 단장斷章

신라고도부新羅古都賦 059

낙와落瓦의 부賦 062

종鐘 064

불국사탑佛國寺塔 1 066

적笛 068

궁시弓矢 069

여명黎明 070

풍우風雨 075

낙엽落葉의 장章 076

바람 부는 숲 078

3. 폭풍의 노래

광릉光陵에서 083

금사자金獅子 084

폭풍暴風의 노래 086

불춤 092

심추深秋 095

삼각산三角山 밑에서 96

이상곡靑霜曲 98

주렴珠簾 100

백운대白雲臺 102

4. 처용_{處容}은 말한다

유과리노스 송가_{頌歌} 105

처용_{處容} 무가_{巫歌} 110

처용_{處容}은 말한다 113

천마도_{天馬圖} 124

상아의 홀_笏 125

고풍 126

추호_{秋湖} 127

함녕지곡_{咸寧之曲} 128

5. 수유동운 水諭洞韻

- 꽃잎 절구 絶句 131
천지 天池 132
매혹 魅惑 1 133
매혹 魅惑 2 135
어느 날의 꿈 137
선녀 仙女 비천 飛天 139
수렵도 狩獵圖 140
나의 바다 141
강산 江山 1 142
강산 江山 2 143
야학 野鶴의 부賦 144

산문 散文

나의 필명 筆名	149
나의 고향	152
홍매루기 紅梅樓記	154
잊을 수 없는 사람들	159
이육사의 인물	172
나의 시 정신과 방법	188
시는 늙지 않는다	191
한국시의 변화와 계속성	194
나와 나의 문학 文學	203

11

1

바라춤

돌팔매

바다에 끝없는
물결 위으로
내, 돌팔매질을 하다
허무에 쏘는 화살 썸치고서.

돌알은 잠깐
물연기를 일고
금빛으로 빛나다
그만 자취도 없이 사라지다.

오오 바다여!
내 화살을
어디다 감추어버렸다.

바다에
끝없는 물결은,
그냥, 까마득할 뿐…….

춤추는 여신 女神

달은 잠들고 그윽한
한숨 지는 밤 동산으로
꽃 같은 여신이 내려오다.

매혹하는 꽃송아리
꾸며 논 보석의 수풀 속에
꿈결같이 움직이는 벗은 몸이
바람에 흔들리는 물을 그리면서

금강석에 문힌 호수 위에
모호한 장밋빛 안개 떠돌아서
여신은 매력의 술을 마시고

제 그림자에 명정하는
아리따운 새와도 같이
시름하는 여울로 비틀거리어
허공의 한 끝을 헤매다

머리는 칠보의 병을 기울여
공작이 어여쁜 연꽃봉오리를 찍고

홍옥을 물린 고운 입술은
탄식하는 꽃잎의
달고도 괴로운 숨결을
어둠 속으로 남몰래 흐트리놓다.

아아, 넋 끊는 적_笛소리 들리고
청춘에 늘어진 기인 버들가지
소백한 보드러운 팔은 서리어
대리석으로 깎은 허리에
애무하는 고운 기반_{羈絆}을 끄르다.

이럴 때 시간은 내밀한
우주를 이루고
침묵은 다디단 권태의 술을 빔다

어느덧 빛과 그림자 얼크러진
순수한 진주의 바다 떠올라서
범주_{帆船}는 푸른 물 거울을 건너고
지상_{至上}의 나래 오오, 뜬구름 쪽은

검무랑 劍舞娘

꽃송아리 달아
전립 戰笠, 검은 머리 위에
비뚜름히 숙여뜨리고

늘어진 버들가지……
긴 치마, 쾌자, 곁들여 입고
은장도, 두 손에 갈라 들고

건드러지게 돌아가는
몸매, 꿈결에 흔들려서
쾌자, 반쯤 흘날리고

자알 잘 혼드는 장도
공연히 죽을 둥도 모르는
매력의 앞만 떠돌게 하누나.

파초芭蕉

— 육사陸史에게

황혼의 쇠잔한 노을이
소리 없이 뜰 위에 나리고
파초가 드린 기인 소매 나부껴
잠간 옛날의 근심을 돌우노나.

속절없이 저무는 이 사이
방황하는 바람은 불어와서
황금빛 나는 네 가지에다
한숨 모여, 비단의 띠를 흘러라.

한숨 쉬는 묵은 파초芭蕉 잎이여!
너는 아는가! — 현세와, 내 머언
인연이 짓는 어지러운 심사를
과멸하고, 또 존재하는 것……
나는 있다, 이 고적한 것의 옆에
오오, 퍼덕이는 옛날의 명정이여!

뱀

뱀은 빛나는
황금의 너울을 쓰고
미풍에 나부끼는
꽃밭으로 흐느적거리다

뱀은 비늘의
은밀한 간살마다
구름장 떠도는
근심스러운 피 빛깔을 흘레다

오오 붉은 양귀비꽃 옆에
마성魔性의 한 덩어리어
네 누운 매무새
느므림은 곁할 수가 없어라

애매한 가지
침의寢衣로 두른 질탕한 허리
푸른 띠 흐르는 요염한
피 많은 꿈트리

미궁으로 엮는
꿈의 또아리 속에서
넋은 불타는
위대한 탄력을 싸다

몸은 구슬픈
구렁이의 타 - 르
거짓하는 그물의
심연으로 꿈은 꺼지려든

몸은 슬픈데
넋은 어지러이
빛난 년출을 감아서
지혜 높음하는 저자로 해매다.

뱀은 꿈어리는
수수께끼의 년출
저자에 서린 불꽃 혀 둘러
총명한 「아이들」을 꼬이다

꼬여라, 그들의 사자^{使者}.
붉은 꽃술 속에서
신은 와서 취하고
신 없는 하늘로 비틀거리다

누리 없는 꿈
둘레 없는 누림
신은 네 하늘에
오색 영롱한 무지개를 그린다.

빛과 그리매와
매혹의 영구한 모이로
뱀은 서린 자리에
슬픈 전설을 남기면서 -

시름하는 꽃가지

으스름 달밤에 시름하는 꽃가지
네 마라의 아리따운 여인이여.
너는 바람 부는 갈대의 어지러운
저잣거리에서
보석의 기이한 연단^{楹丹}을 만들도다.

네 몸은 빈 들에 핀 홍도화 가지 같도다.
네 머리는 은햇대에 얹은 공작새 같고
네 얼굴은 반쯤 벌어진 연꽃봉오리 같도다.
그러나 남그옥한 진주의 동산에
장난하는 뱀이 숨어 있도다.

오오, 어여쁜 짐승이여.
너는 표피^{豹皮}를 깔은 밤바다에다
다디단 술을 퍼붓고
홍옥을 물린 고운 입술은
남 호리는 웃음이
사뭇 터져나오도다.

그러나 너는 도망하기를 좋아하노라
굴레 벗은 망아지처럼……
잡기 어려운 가시덤불로
이슬한 짙레꽃 숲속으로

아아, 풍설이 싸움처럼 설레는
밤 호수에, 단장하는 쪽배를 띄고
원앙이 날은 비단 자리에서
너는 먼 시름의 뒀을 파도다.

으스름 달밤에 시름하는 꽃가지
배반하기 쉬운 하늘의 숨결을
교역하는 어지러운 저잣거리에서
너는 수많은 금강석을 울리며
슬픈 갈대의 피리를 불도다.

멸_滅하지 않는 것

황홀하게도, 은밀하게도
내 가슴에 정열이 타고 남은
적막한 잿무덤 위에,
예지와 수많은 그리매로써
꾸며진 이 회색의 무덤 위에
페닉스! 오오, 너는 되살아서
불과 같은 나래를 펴고
죽은 줄만 여긴 네 부리에
매혹의 힘은 다시 살아나서
나를 물고, 나를 쪼으고
연애보다도 오히려 단 오뇌로 나를
또, 이끌어 가누나.

화장化粧

다만 불멸의 소리 있을 뿐. — 발레리

날마다, 날마다
고적한 거울을 대하여
내 모양을 꾸미는
내 심사를, 그대는 알아요?

내가, 내 꾸밈으로써
구태여 그대의 욕구를
끄올려 함은 아니언만

그래도, 난 내 모양 꾸미는
그 일에만 팔려, 날마다
거울을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호접^{蝴蝶}

호접^{蝴蝶}이여! 언제나
네가 꽃을 탐내어
붉어 탈 듯한
꽃동산을 헤매느니

주검도 잊고
향내에 독주에 취하여
꽃잎 위에 네 닢의
정열이 끝나려 함이

붉으나 쉬이
시들어질 꽃잎의 헛됨을
네가 안다 하여도

꿈결 같은 즐거움
사라질 이슬 위에
취함은, 네 삶의 광휘일러라.

무녀巫女의 춤

공작 깃

패랭이 제껴 쓰고

무녀야 미칠 듯

너는 춤을 추다

도홍선桃紅扇 활짝 피어

붉은 입술 가리고

웃고 돌아지는

보석 같은 그 눈매

찢레찢레 흔드는

신神 솟은 몸

저도 남도 모르는

귀매鬼魅를 부르는데

혈은 옷 떨치어

낙화로 흩날리고

징소리 쟁쟁

바람집에 모이더라.

밀도蜜桃를 준다

익어터지려는 이 밀도蜜桃 열매!
오—랜 열망이 와서 어린
상아嫦娥의 두렷한 반에 놓아서
네 아담한 웃음에 주거니,

그래도 제 몸 숨김일레
얇은 비단의 잔털로 싸아서
유방의 붉은 은밀한 끝이
애써, 지난날의 근심을 깨우려나.

오오, 아나婀娜한 여인이여!
매혹으로써만 감춘 단 이슬로
반쯤, 벌어져서 꽃잎과도 같은
네 입술을 물들게 하여라.

있는 듯, 마는 듯
이 과육果肉의 이슬이 사라지는 동안
붙어서 굳은 황금 씨알이
네가 가진 영혼의 밀우를 꿈꾸게 하노나.

연꽃

내가 옛 동산을 거니다니
깊은 못 속에, 푸른 이끼 끼어 어리고
붉은 연꽃은 피어나서
아나^{婀娜}한 송아리를 들었에라.

붉게 피어난 연꽃이여!
네가 꿈꾸는 내안^{涅槃}이 어디런가
저리도 밝고 빛난 꽃섬들이
욕망하는 입술과도 같이, 모두
진주의 포말로 젖어 있지 않은가

또 깊은 거울엔, 고요가 깃들고
고요에 잠든 엽주^{葉舟}는 저마다
홍보석을 실어서, 옛날 왕녀가 버린
황금 첩지를 생각케 하누나.

오오, 내 뉘야 오렘아! 우리
님프가 숨은 이 뜰을 내려
연잎 위에, 오래고 향그러운 아침 이슬을 길으리…….

규녀閼女

네가 비밀한 장막 드리우고,
꽃과 같은 규방 속에서
내 여인이여! 너는 내 가슴에다
무슨 허무의 심사를 그리는가?

깊고, 그윽하고 범할 수 없는
무구한 사원 속으로 너는 지니리라,
영원의 달, 푸른 모이와
스란 속에 네 아리따운 열매를…….

오오, 규녀閼女! 감추인 옥석玉石!
후원에 핀 난꽃 한 떨기여!
네 숨은 탄하기 어려워라.

네 몸은 익어 타는 듯하여도
네 혼은 깊은 뜰 안에 있어
지샘이 가져오는 숲들을 헤매게 하누나.

비취단장 翡翠斷章

너 자신을 알라. - 소크라테스

슬프다, 바람숲에 구르는 옛날의 옥석_{玉石}이여
비취, 보석인 너 노리개인 너여
아마도 내 영원히 잊지 않을 너만의 자랑스러운
영화를 꿈꾸었으련만
뜨른 세상에 어지러운 오뇌를 안고
거칠은 쑥대 구렁을 내가 헤매느니
적막한 깊은 뜰을 비추이는 푸른
달빛조차 어이 흐려 있다.

푸른 기왓장 흐트러진 내 옛 뜰에
무정한 꽃만 피어 지고
쓸쓸한 파멸 속에 너는 굴러서
창백한 때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별살을 헤인다.

아아, 이슬한 오경 밤에
그므레 타는 촛불 옆에
홀로 누워 잠 못 이루는 여인의
회고 나뉠한 백설 같은 목덜미
술한 머리쪽은 풀어져 물결치는
베개 위에 찬 달 그리매

애달픈 꽃잎을 그려라.

비취. 오오, 비취. 빛나는 옥석玉石이여
내 전신轉身의 절 안에 산란한 시간의 발자취
다비의 넓은 흔적이 어릴 제
너는 매혹하는 꽃 같은 손길에 이끌리어
그지없는 애무 속에도 오히려 불멸하는 빛을 던진다.

나는 꿈꾸는 몸뚱이를 안고
소슬한 대숲 바람결에
솟아오르는 허무한 욕구를 사르면서
혼자서 헐린 뜰을 내리려 한다
저곳엔 시들어지는 고운 난꽃 한 떨기
또, 저곳엔 깨끗한 뗏돌 위에
꿈결같이 떠오르는 영원한 처녀의 자태……

어쩔까나
나의 난심을
내 어지러운 갈래는 마음을
비취. 내가 옛 동산을 가고 또 오는

내 몸 고달픈 시름의 년출을
인간의 열크러진 갈림길로 알고서
고독한 푸른 옥에 몸을 떨며
슬픈 리라의 가락을 탈까나

비취. 오오, 비취. 티 없는 네 본래의
빛깔이야 부러워라
저, 심산 푸른 시냇가에 흩어지는 부엌안개 떠돌아서
창천은 흐득이는 여명의 거울을 거누나
아아, 오뇌를 알은 나
영겁을 찾는 나
비밀한 유리 속에 떠서 흔들리는 나여. 너를 불러라.
빛과 흙질의 수풀 위에 찬 보석이여.
나여. 정신이여.
멀하지 않는 네 밝음의 깊은 근원을 찾아라…….

바라춤 서사_{序詞}

묻히리란다. 청산_{靑山}에 묻히리란다.
청산_{靑山}이야 변할 리 없어라.
내 몸 언제나 꺾이지 않을 무구_{無垢}한
꽃이언만
깊은 절 속에 덧없이 시들어지느니
생각하면 갈가리 찢어지는 내 맘
설워 어찌하리라.

묻히리란다. 청산_{靑山}에 묻히리란다.
나는 혼자이로라. 짙레에 얽어진
숲 사이로 표범이 불려 애우고
재울리 바라 소리 빈 산_山을 울려
짙짙 우는 산_山울림과 밤이면
달 피해 우는 두견_{杜鵑}이 없으면
나는 혼자이로라.

숨으리, 잠긴 뜰 안에 숨으리란다.
숨어서 보살_{菩薩}이 아니 식이련만
공산나월_{空山蘿月}은 알았으리라.
필 데도 필 데도 없이 나는 우노니라.

혼자서 우노니라.

아아, 적막한 누리 속에 내 홀로
여는 맘을 어찌하리라.

낮이란 구름산^山에 자고 일어 우니노라.

밤이란 깊고 깊은 지대방에 잠 못 이뤄 하노라.

감으면 꿈결같이 떠오르는 마야^{*}의 그리매

가슴속에 솟아오르는 오뇌의 불길이

꽃바리에 타는 향연^{香煙} 같도소이다.

아아, 오경^{五更} 밤 깊은 절은 하마 이숫하여이다.

달 밝은 구름 창에 이운 복사꽃이

소리 없이 지느니

사람도 늙어서 저처럼 이우는가

꿈 같은 사바^{娑婆} 세월이 덧도

없으니이다.

천만^{千萬} 겹 두른 산에 들리나니

물소리

어지러운 시름의 여울 속에

보살^{菩薩}도 와서 어릴 거꾸러진
유혹^{誘惑}의 진주^{眞珠}를 남하 보리라
푸여오른 꽃잎의 심연^{深淵} 속에
다디단 이슬이 듣도소이다.

시름도 성체도 부질없는 우상^{偶像}이니다.
팔계^{八戒} 쇠성이 모두 다 성이 가시니다.
시왕전^{十王殿}에 드린 원은 봄눈처럼 사라지니이다.
가사^{袈裟} 여러 메어, 가사^{袈裟} 여러 메어
바라^{婆囉}를 치며 춤을 출까나.

가사^{袈裟} 여러 메어 가사^{袈裟} 여러 메어
혈은 가슴에 축 늘어진 장삼에
공천풍월^{空泉風月}을 안아 뉘어
괴론 이 밤을 고이 새우고저.
괴론 이 밤을 고이 새우고저.

몸아. 맨몸아. 푸른 내 몸아.
마^魔의 수풀을 가노라.
단꿈은 끝없는 즐거움을 좇아

꽃잎 저 흐르는 여울을 가노라
바다로 여는 강江물을 뉘라 그지리오
어느 뉘라 그지리오.

불타는 바다 위에, 불타는 바다 위에,
난 던져진 쪽달일레라.
사갈나* 너른 들에 버려진 꽃가질레라.
이슷한 사라의 장삼 속에 꿈어리는
몸이 부엌한 물 같으니다.

아스리 나는 미쳤에라.
나는 짐승이 되었에라.
마라*의 짐승이 되었에라.
내 혼魂과 몸의 씨앗을 쪼갤
빛날 장검을 나는 잃었는가.
숙명宿命의 우리 안에 날 지닐
오릇한 자랑을 나는 잃었는가.

문히리란다. 청산靑山에 문히리란다.
청산靑山이야 변할 리 없어라.

나는 절로 질 꽃이어라.
지새워 듣는 범고法鼓 소리
이제야 난 군세게 살리라.
날 이끄을 흰 백합의 손도 바람도
아무 것도 내 몸을 꺾을 리 없어라.

* 마아야 : 범어로 환영幻影을 말함.

* 사갈나 : 범어로 인생고해人生苦海를 말함.

* 마라 : 범어로 마왕을 이룸(마라는 그의 딸을 시켜 춤을 추게 하여 싯타르타를 유혹하려 하였다.)

바라춤

환락은 모두 아침 이슬과도 같이 덧없어라. — 싯타르타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티 없는 꽃잎으로 살아 여러 했던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청산^{靑山} 깊은 절에 울어 끊인
종소리는 하마 이숫하여이다.
경경히 밝은 달은
빈 절을 덧없이 비추이고
뒤안 이숫한 꽃가지에
잠 못 이루는 두견^{杜鵑}조차
저리 슬피 우는다.
아아, 어이 하리.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닐 즐거운
무상한 열반^{涅槃}을
나는 꿈꾸었노라.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맘의 맑은 거울을 흐레노라.

몸은 설워라.
허물 많은 사바^{娑婆}의 몸이여,
현세^{現世}의 어지러운 번뇌가
짐승처럼 내 몸을 물고
오오, 형체, 이 아리따움과
내 보석^{寶石} 수풀 속에
비밀^{秘密}한 뱀이 꿈어리는 형역의
끝없는 갈림길이여.
구름으로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는 꽃잎도 띄워
둥둥 떠나려가겠다
부서지는 주옥^{珠玉}의 여울이여.
너울너울 흘러서
창해에 미치기 전에야
끓일 줄이 있으리.
저절로 흘러가는 널조차
부러워라.

접동새, 우는 접동새야.
네 우지 말아라.
무슨 원한이 그다지 골수에
사무치길래
밤중만 빈 달에 피나게 울어
남의 애를 끊느니.

이화^{梨花} 흰 달 아래
밤도 이미 삼경^{三更}인 제
승방^{僧房}에 홀로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나니
시름도 병인 양하여
내 못 잊어 하노라.

아아, 속세^{俗世}의 어지러운 진루^{塵累}여.
허울 좋은 체념이여
팔계^{八戒} 계송^{戒頌}이 모두 다
허사런가
숙명^{宿命}이 낳은 매혹의 과실이여.
묻혀진 백옥^{白玉}의 살결 속에

문혀진 백옥^{白玉}의 살결 속에
내 꿈꾸는 혼^魂의 슬픈
심연^{深淵}이 있어라.
다디단 꽃잎의 이슬
견잡을 수 없이 흐르는
애끓는 여울이여
길어도 길어도 끊이지 않는
가슴속의 샘물이여.

눈물이 깨어진 진주^{眞珠} 다래라면
늪비니^{藍毘尼} 밝은 구슬성도
이루지 안 했으랴.
눈물이 깨어진 진주^{眞珠} 다래라면
수미^{須彌} 높은 뒤편도 아니
이뤘으랴.
눈물이 흘러 이내 흔적이
없으니
내 그를 애달파하노라.

아아, 헛되어라 울음은
연약한 속임이여

수유에 빛나는 거짓의 보석寶石이여.
내가 호숫가에 쓸쓸히
설레는 갈대런가
덧없는 바람 달에
속절없이 이끌리는
값싼 시름의 찌꺼기여.

적멸寂滅이 이리도 애답고나.
부질없는 일절관념一切觀念이여.
영생의 깊은 수기授記가
하마 허무하여이다.
관념은 모두 멸하기 쉽고
잠든 숲속에 세월이 흐르노라.
어지러운 윤회輪廻의
눈부신 여울 위에
변하여가는 구름 연기
시간이 남긴 사원寺院 속에
낡은 다비茶毘만 어리나니
세월이 하 그리 바쁜 줄은 모르되
뗏는 줄을 몰라라.

덧없이 여는 매살한 손이여.
창 밖에 피인 복사꽃도
바람 없이 지느니
하물며 풍상을 여는 사람의
몸이야 시름한들 어이리
오오, 변하기 쉬운 꽃여울이여.
내 아리따운 계곡에 흐느껴
우는 소리
내 몸 잔잔한 흐름 위에
홀연히 여는 전이轉移의 물결 위에
내 끝내 지는 꽃잎으로 허무히
흘러 여는다.

다만 참된 건 고뇌하는
현유^{現有}의 육신뿐인가.
순간에 있는 너 삶의 빛깔로
벽차 흐르는 내 몸뚱어리
순수^{純粹}한 욕구로 불타오르는
꽃송아리
황홀히 타는 구슬의 꽃술 속에

망령된 시름하는 나비들은
금_金빛으로 날아
빗발처럼 쏟아지느니

깊은 산_山 유리 속에 홀로
선 내 모습이
하마 청산의 허재비 같으니다.

장근 동산이 날 에워
한 조각 여는 구름모양
저 영_嶺을 넘지 못하느다
내 안에 내 안 내 누리 안에
무닐 수 없는 장벽이 있도소이다.
아아 애절한 구속_{拘束}의
모래문_門이여.

넓은 천지간에 속세를 등져
깊이 숙여 쓴 고깔 밑에
고이 접은 네 아미_{蛾媚}
죄스럽과 부끄러움을 가려

그늘진 푸르른 정의^{淨衣}
남몰래 앓는 백합을 어리는
빈 산^山 칙 달은 하마 휘엿하엿이다.
야^夜삼경 호젓한 다락에
들리느니 물소리만 요란한데
사람은 없고 홀로 타는 촛불 옆에
풀어지는 깃 장삼에
장한이 너울져
춤추는 부나비처럼
끝도 없는 단꿈을 나는 좇니노이다.

아아, 고독^{孤獨}은 죄스러운
사념의 뱀을 낳는가
내 맘 그윽이 떠오르는 마아야
남몰래 떠오르는 꿈결 같은
마아야의 손길.
.....

천만 겹 두른 산^山에
어리고 서린 드렁칩이

밋밋한 오리나무를 친친 감아 엮으려져
제멋대로 살어 연다.
사람도 저처럼 어러져, 멋대로 살어 열까
바람도 그리움도 천만 없소이다. 나는 ……
절로 피인 꽃이니다.
만개한 꽃의 매력^{魅力}으로 부풀어 오른 몸뚱어리
오오, 순수^{純粹}한 장미의 덩어리어.
바람으로 솟은 등실한 도리^{桃李}의 메여

팔상^{八相}에 이끌리는 무릇 재앙의 씨여
오오, 끊기 어려운 삼계^{三界}의 질긴 연^緣이여
내가 오히려 사갈나의 꿈숲을
얼 없이 헤매느니
광풍^{狂風}에 지부친 뱃사공처럼
물 아래 세 가닥 모래
깊은 웅덩이를 보지 못히는다.

「보리살타^{菩提薩埵}」 오오,

「보리살타^{菩提薩埵}」

나무 여래보살南無如來菩薩

나무 관세음보살南無觀世音菩薩

나무 지장보살南無地藏菩薩

중생을 건지신 높은 덕에
청정한 크신 법에
내 몸을 바침이 내 평생의
원입니다.

시방十方 너른 하늘 아래
시방十方 너른 하늘 아래
내 몸이 한낱 피여지는 꽃입니다.
첩첩한 구름산에 남몰래 살어지이다.
살어지이다.
그러나 오오 그러나
사바를 꿈꾸는 나여. 마魔에 이끌리는 나여.
오오, 「마라」 네, 「마라」
오뇌의 이리여.
바람 속에 달리는 들짐승이여

네가 만약 장송에 깃들인 학 두루미라면
구름 잠긴 영徽에 흰 날이 흐르는 제
구친 높이 솟아 훨훨 날아도
여지 않았으랴
내가 적막한 기와 우리 속에
차디찬 금金빛 소상 앞에
엎더져 몸부림하는 시름의 포로가 되어
감은 치의緇衣 속에 솟아오르는 오뇌의 불길이
꽃바리에 타는 향연 같도소이다.

오경五更 밤 기운 절寺에 헤매는
바람결에 그옥이 우는 풍경 소리
상방上房 단힌 들창에 꽃가지
흔들려 춤을 추고
창 밖 구름 뜰에 학鶴도 즐아
밤이 더욱 깊으메라.
쓸쓸한 빈 방안에 홀로 일어 앉아
남몰래 가사 장삼을 벗도소이다.
벗어서 버린 가사 장삼이
방바닥에 흐트러져
푸른 못 속에 뜬 연蓮꽃 같으니다.

누우면 잠이 오며
앉으면 이 시름이 사라지랴
이제 누은들 어느 잠이 하마 오리
어지런 시름숲에 누어 앉아
홀로 밤을 새우나니
서역西域 먼 길은 꿈속에도 차노메라.
겁겁劫劫에 싸인 골은 안개조차 어두메라.
극락極樂이 어디메뇨 가는 길도 모르메라.

오오, 스님. 바라문門의 높으신 몸이여.
금석金石같이 밝으신 맘이여.
하해河海같이 넓으신 품이여.
백합같이 유하신 팔이여.
날 어러지이다 어러지이다
이 밤 어러 자는 목숨이 하마 절실하여이다
가뭇없는 속세俗世의 티끌로 나는 가느이다
「사바세계」 「일체고액」을 닛에 지고
여느이다.
스님 오오, 모진 이 창생을 안아지이다.

가사^{袈裟} 어러메어 가사^{袈裟}를 어러메어
바라^{婆囉}를 치며 춤을 출까나
가사^{袈裟} 어러메어 가사^{袈裟}를 어러메어
혈은 가슴에 축 늘어진 장삼에
공천풍월^{空泉風月}을 안아 누워
괴론 이 밤을 고이 새우고저
괴론 이 밤을 고이 새우고저
지루한 한평생을 짧게 살아여지이다.
수유에 지는 꿈이 소중한여이다.
다디단 잇음이 영역^{領域}으로 이끌어가는 육신의 발원이며
계름에 길길이 풀어지는 보석^{寶石} 다래여
천길 구름샘에 폭포가 쏟아져내리노이다.

아아, 나는 미쳤는가
나는 짐승이 되었는데
마라의 짐승이 되었는데.
속세에 내린 탐란한
암사슴이 되었는데.
제가 제 몸을 엮는
관능^{官能}의 오락줄이며.

아스리 나는 미쳤어라.
유혹^{誘惑}을 버리리라.
나는 거룩한 열을 잃었어라.
형산^{荊山} 문헌 백옥같이 청정한
예지^{叡智}의 과일을 나는 잃었어라.

환락은 아침 이슬과도 같이 덧없느니,
오오, 미친 상념이여. 허망한
감각이여.
물결이 왔다 철령 달아난
빈 모래필이여.
흐트러진 젓가슴에 회한의
바람이 휘돌아 불어
내 안이 텅 빈 동굴 같으니다.
꽃 지는 산^山 다락에 울어에는
귀촉도
영정한 저 소리만
어지러운 물소리에 적녁히 굴러
잠자지 못하는 사람의
깊은 속을 울리노라.

열치매 부잇한 둥근 달이
꽃구름에 어려
등실 날은 추녀 위에
나직이도 걸렸어라
깊고 높고 푸른 산_山이 날 에워
네 곁은 비여 죽은 듯 고요하여이다.
접동새. 우는 저 두견_{杜鵑}아.
어느 구름 속에 내가 울어
짧은 밤을 새운다.
두견_{杜鵑}아. 네가 어이 남의 애를
꿨느니.
쿵쿵 흐르는 물소리도
네 울음에 겨워 목이 메이노라.

물가에 내려 이슬한 수풀 속에
내 벗은 꽃 같은 몸을 씻노이다.
공산_{空山} 잠긴 칙 달이 물 위에 떠
금_金빛으로 흐르메라
후미진 여울에 빠져 흔들리는
내 고운 모습

여울에 잠긴 하얀 진주^{眞珠} 다래여.
물거울에 흐트러졌다 다시
형체를 짓는 보석^{寶石}의 더미여.
네가 물같이 흐르지 못하여
빠진 달처럼 구름 샘에 머무느니.

모양에 갇힌 포말^{泡沫}의 뒤편.
내가 이 맑은 경^境에 와
죄업의 티끌을 씻노라
적막은 푸른 너울처럼 감돌고
부푼 아리따운 형태의 반영에
고혹하는 비밀의 힘은 살아나노나.
아아, 몸과 영혼은 영원히
배반하는 모순^{矛盾}의 짝이런가
씻어도 씻어도 흐려지는 관^念형^態여.

물아. 흐르는 물아. 철철 흐르는
물아.
풀어진 네 몸은 행복도 하여라
응고^{凝固} 되지 않는 네 형체

번뇌도 시름도 없으리.

천千 가닥 흠어지는 구슬 골짜기
네가 풀어져 흘러 산山 밖으로 여는다
언제나 새로운 근원
흐려지지 않는 순수純粹한 샘이여.

땡! ……

새벽종이 우노라
밤이 이내 지새런다
땡! 땡! 종鍾이 우노라
종鍾소리 굴러 물소리에 흔드노메라
소쇄한 유리 속에 년짓 선 나
고독孤獨한 나여.
여명黎明은 참으로 모든 형체를 들어내고
물체物體와 영상影像을 나뉘노라
보랏빛 수풀 위에 흐려지는 달 그리매
창천이 부잇이 밝아
낙락한 푸른 봉우리가 이곳 가까이 다가서노나.

청산^{靑山}아 네 거룩도 하여라.
구름에 솟은 바위도 자라나는 나무도
어둠에서 되살아나
불멸의 빛을 던지노라.
네가 날 위해 날 위해
언제나 있어주렴
그러나 부세^{浮世}를 그리는 나
내 몸에 소용돌이치는 숙명^{宿命}의
부르짖음이어.
아아^{嗚嗚}히 솟은 푸른 봉^峰에 밝아오는
숲 바다
밀밀한 나무가 금^金빛 나우리를 흔들고
지금 아침 태양^{太陽}은 장미꽃으로 벌어지노라.
가지 끝에 자던 새들 잠 깨어
생생히 우지진다.

둥, 둥, 북이 우노라.
두리둥둥, 아침 법고^{法鼓}가 우노라.
천수다라니 염불 소리
가사 장삼에 염주를 목에 걸고

아침 재를 올리노이다
아아, 우상^{偶像}에 절하는 어리석은 무리
서글픈 위선자여. 거짓의 청신녀^{淸信女}여.
꿈도 시름도 비명으로 사라지리
시간^{時間}은 혼미^{混迷}에서 깨어나느니
아침 빛갈이 화려하게 불타
자잘한 삶의 소리 일어나노라.

북소리 염불 소리
염불 소리 물소리
물소리 바라 소리
바라 소리 물소리
물소리 흘러
종^鐘소리도 흔드노메라.

일만 봉 구름 속에 울어 예는 산울림
미풍^{微風}은 참으로 내 젓가슴을 띄우고
첩첩한 산허리에 장미의 숲을
건느노라.
내, 늘어진 장삼에 소매를 떨쳐

그윽한 저 절을 내린다

무위^{無爲}한 슬픈 계곡을 나는 내린다…….

* 이 시편은 1968년 11월 우리나라 신시 60년을 축하하는 〈시인
만세〉 잔치에서 임성남 씨가 안무한 춤과 함께 낭송되었다.
이 시는 348행이나 낭송된 시는 278행이었다.

2

서라벌 단장斷章

신라고도부_{新羅古都賦}

1

멀리 달려온
구름 별판
밭뜰에 구르는
넓은 기왓장
십팔만 호
옛 서울은
가뭇없는 꿈일레라.

소슬한 가을바람
호젓한 길가에
묻힌
신라 왕궁의 화초와
삼한_{三韓} 의관들.

저녁 안개 서린
아리나리강 찬 마을에
먼 개 짖는 소리
들리고

무덥무덥
섬처럼 떠오는
고대 왕릉에
소리개 날아
떠돌아 우니노라…….

2

서라벌 옛 도읍
가을 으스름
푸른 연기 자욱한
미추왕릉에
솔바람 차다.

멀리 돌아가는
동해 구름
구름에 어린 삼천리
신라 천년 꽃구름도
꿈에 들어 스미노라.

적막한 嬀媯宮畔에
지나는 나그네

푸른 옷깃에
낙엽이 지노라.

아아. 인사人事는 변하여
그지없어라.
벽해상전이 되어
옛것이 가고 오지 않느니…….

낙와落瓦의 부賦

가을 황혼에,
쓸쓸한 폐허를 걸어서
나는 혼자 해매이도다.
— 무한히 열린 창공에 물들어서.

슬픈 국화꽃
태양 아래(나는 천상의 술을 마시고)
꽃잎같이 흩어져 구르는
푸른 파편들을 밟고 가도다.

서녘 바람은 마른 나뭇가지에 깃들이는
작은 새들을 고독히 하고.

어느덧 달은 이슬에 젖어,
내 발밑에 비명하는 깨진
보석을 비추이도다.

오오, 눈앞에 흩어진 낙엽들이여,
영화의 무덤 위에 불가항력의
조각들이여!

떨망하기 쉬운
시간은 물과 같이 흐르고,

어데선 애끓는 적_笛소리
저 멀리 들려오도다.

중鐘

나라이 망하면
종도 우지 않던가

내가 한갓
지나는 손의 시름을
이끄는
기인한 보물이 되었을 뿐
꿈하고 내가 울면
신라 산천 사백 주가
한데 엮드려
대응도 하였으리

나라이 망하면
종도 우지 않던가.
오오, 묵묵한 종이어

가을날 단청이 떨어지는
옛 정_亭 소슬 추녀에
구름이 돈다.

울어라. 종 울어보렴.
네가 큰소리를 내어
또 한 번 천지를
뒤흔들어보렴…….

불국사탑佛國寺塔 1

불국사 깊은 뜰에
사람은 없고
탑만 홀로 서 있노라.

구슬같이
꽃같이
씻은 거울과도 같이

불국사 너른 뜰에
사람은 가고
탑만 절로 빛나노라

눈부신 고운 형태
한 점 속된 티끌도
쓸었에라

돌을 깎아서
보물로 만드는 사람의 조화를
신神도 아지 못하리라

저 임아 천고 원한을
말치 말아.
사람은 가도 탑은 남아
영구히 빛나노라.

적_笛

슬프다, 찬 달이여.
연기 낀 서라벌의
옛 하늘로 헛되이
네 먼 꿈을 보내는가.

아스라한 날과 달이
흘러가고 또 와도
네
인간의 어지러운 풍파를
그치지는 못할넌가.

어느 초월한 악공이 있어
널 부리 홍량_{弘亮}한 소리를 내어
창해에 담백 어린 구름을
깨끗이 쓸지는 못하는가.

멀한 나라 옛 빈 터전에
남은 찬 달과 연기
오오, 애달픈 침묵의
적_笛이여.

궁시^{弓矢}

반달 같은 활 시위를
당겨 한번 힘껏 쏘으면
휘영청 하늘에 가이없이
되지 않는 물결이 이느니,

오오, 활이여! 네, 나는
황금의 아리따운 살로써
내가 가진 사념의
묘망한 구름을 쏘게 하여라.

화살이 가서 찌르는
그 과녁을 남은 몰라라,
아무도 그 비밀한 곳을 몰라라.

그래도 바람이 가는 이 사이,
빠르고 빛난 움직임이
잠들기 쉬운 내 몸을, 깨워도 있으리.

여명黎明

— 사슬 풀 프로메테우스의 단편(斷片)

밤은 지새노라. 긴 한 밤
차운 어둠으로 밤은
가노라.
장미인 양 피어지는 나의
옷자락이
잠든 희미한 네 영혼을 안고
내 손은 아리따운 백합으로 어리어
오만한 네 이마를 어루만진다
오오, 광명의 아들 프로메테우스여.
잠을 깰 때가 왔노라
일어나렴아
어지러운 슬픈 모이와
무료(無聊)와 한 많은 구속의
자리에서
프로메테우스 네 몸을
일으켜
저어 드높은 산맥을
내리라.

너는 네 육체로 돌아왔노라.
너는 자유를 얻었노라.
비약하지 않으면 안 되리.
빠른 동작과 불타는
의식으로
네 무상^{無上}한 영역을 잡아라.

프로메테우스여,
네 팔과 다리를 내밀라.
크고 보드러운 수목과
소생하는 아침의
황량한 안개 낀 광야로
너의 영광과 너의 꿈꾼
비밀하고도 새로운
가지가지 이상 건축을
세우기 위하여.

어느덧 밝음을 고하는
나팔 소리 날카롭게
빈 창공을 건네노라

젯빛 구름 떠도는 골짜기에
희학(熾學)하는 천사의 무리들
저마다 나래를 펴고
지저귀는 새들 어지럽게도
그를 시새노라
이럴 때 무리로 벌어지는
나의 꽃잎이
내오(內奧)한 벼은 우주를 낳는다.

우주는 나의 산산한 주옥 속에
숨김없이 형체를 드러내고
기세를 찾은 모든 생물의
무리들의 떠들며 움직이는
발소리
수많은 금강석이 쏟아지는
소리 속에 그 속에
갖은 관념의 물결은 치노라.

아아. 바람이 불려는도다.
프로메테우스여. 달리어가거라.

저어 수풀 저어 부산한 물결 속으로
저어 섬과 섬 어지러운 저자
황금빛 표피豹皮가 드날리는
속으로
그래 널 그 속에 숨이게
하여라.

프로메테우스 —
나는 일어나노라. 멸망으로부터
오랜 오뇌로부터
나는 되살아났노라 나는 부신
눈으로 세계를 보노라
아아. 무슨 숙명의 장난에
나는 이끌렸던가?
나는 내 몸에 얽힌 사슬을
풀고
내 사지를 길게 뻗어보노라
난 이제야 나로 돌아왔노라

난 본디 불이로라
오오, 황취^{荒鷄}여 나는 모든 것을
태우려 하노라.
모든 것을 불사르려 하노라.
눈물과 영탄을 버리리
하잘것없는 이 관념형태를
두들겨 부숴라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지새는
나의 영토를 내리려 한다.

풍우 風雨

봄도 반 넘어
깊은 산방에
내 홀로 잠을
깨어 누웠나니

베개 위에 듣는
비바람 소리는
뒤안 꽃숲을
다 흔들어 놓는다.

꽃이 피면 왜 이리
비바람은 많은가

세월이 하마 덧없이
뒤흔들며 가느니.

낙엽落葉의 장章

1

서릿바람이 산뿔을 휩쓴다.

낙엽이 낙화처럼 흩날린다.

낙엽이 산뿔을 덮는다.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터져온다

산뿔이 갑자기 너그러워진다.

붉은 노을이 산정의

푸른 기와 위에 번득인다

뜰 아래 단풍이 홀로

곱게곱게 불탄다.

2

낙엽이 가득한 산뿔에

주인이 홀로 거닌다

머릿속의 사념이 푸른

바다 물결처럼 출렁인다

머리 위에 흰구름이 돈다.

산사의 종소리가 운다.

(종소리는 가깝고 차게 떨어진다)

주인은 말없이 국화꽃을 들여다본다

국화빛이 유난히 푸르다.

바람 부는 숲

바람이 내 뒤편
수풀을 흔들고
그윽한 심연의 유리가
바다 물결처럼 울어온다.

몸뚱이는 설레임에
나는 내 안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노라.

눈 쌓인 산
찌어질 듯한 하늘 아래
떨어지는 깊은 절 종소리
오오, 지새는 창살이여.

내가 질서도 없는
이 부산한 수풀에 누워
내일의 미지의 길목을
헤이노니

바람도 떠가는 달도
흐르는 별도 헤어진 옷도
다만 지나는 시간을 말할 뿐.

오오. 불어제쳐라.
바람. 내 몸에 걸친
남루가
홀짝 벗겨질 때까지.

시

3

폭풍의 노래

광릉^{光陵}에서

시월달에
광릉^{光陵}엘 오니
단풍이 흐드러지게 피어
환한 꽃밭 속이데
빨간 단풍잎 한 잎을 따서
구름에 띄워보았네.

다시 광릉^{光陵}에 오니
단풍은 바람과 함께 지데.
상강^{霜降}에 쌓인 가랑잎 밟으며
오솔길 걷는 벗을
내가 처음 알았네.

금사자_{金獅子}

금사자야
금빛 바람이 인다
해바라기가 피었다.

하늘 아래 돌도 없는
너의 황금 갈기
휘황한 너의 허리

주홍색 아가리를
딱딱 벌리고
조금은 슬픈 듯한 동굴 같은
눈을 하고

맹수 중에
왕중왕_{王中王}.

꽃 피 만발한
싸리밭에
불붙은 태양의 먹이

네 발로 움켜잡고
망나니로 뒹군다
땅 위에.

고려 천년
화사한 날에
해바라기가 피었다.
금빛 노을이 뜬다.

폭풍^{暴風}의 노래

바람이 분다. 바람아 잠 깬 바다를 건너
네 몰려오라.
너의 숨결은 내 아침 하늘에
안개와 광명의 티끌을 가져온다.
금으로 두른 아레스*의 옷자락이
나를 빛내고 또 나를 흐린다.

프로메테우스여. 내 —
바다를 쏘는 황금 화살이
구름 벽을 뚫고
너의 심연으로 쏟아지는구나.
바람에 뒤설레는 물결의 눈보라
밝음을 낳는 아침 한때는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가.

저기 번득이는 여명의 부채살 속에
구름과 갈대 흔들리는 곳에
바빌론*의 저자가 움직인다.
불멸하는 묵은 제왕의 도시가
잠 깨어 물결을 치노라.

성은 뒤끓고 원주(圓柱)는 수런거린다
복도에 웅성대는 군집(群集)의 소리.

바다는 고민하는 아틀라스*의 머리 위에서
진동을 한다.

바위로 부서지는 물결의 물보라가
하늘 꼭대기까지 솟아오르는구나.

유락의 천사. 하얀 비둘기들은
놀래어

미지의 숲으로 날아 흐트러지고
적멸을 깨뜨고 일어선 광세의 군사들이
구름에 모여 기치창검을 든다.

오오, 프로메테우스.

황량한 나의 뜰에 구르는
부서진 주춧돌과 어수선한 벌집들.

바람아 불라. 썰라*의 숨결이여.

불어오라.

역사를 꾸미던 술한 꽃잎들이

낙엽처럼 날아

기슭 없는 바다를 덮는다.
갑작스러운 물결의 소용돌이로
바위는 포효하고 하늘은 찢푸러지고
갈대는 쫓는다.
잡초는 우거진 묵은 거리론
놀란 곤충들이 기노라
아아, 먼지가 이노라.

광명을 찾는 무리들이여,
대지에 자줏빛 하늘문이 열릴 제
내가 쏘는 불의 화살
나의 빛깔의 충격에 사로잡힌
못 새들, 자유의 새들이여,
서로 배반하는 오오, 십천⁺의 생각의 자식들이여,
이 큼직한 불집 속에 와 헤매라
나의 장미빛 화살에 몸을 던져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게 하라.

내가 갖가지 환상의 숲에 펼쳐놓은
매듭 많은 비밀한 그물을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프로메테우스. 어쩔까나,
이 혼돈과 어지러운 풍파를.
너의 지혜의 보고를 활짝 열어노렴.

문명의 선구자여. 어둠을 밝힌 자여.
그러나 장난꾸러기 창조자여.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 하는가
폭풍이 부는 거리에서
이 티끌의 도가니 속에서
프로메테우스여, 너는 무슨 능력으로
너의 완결무결한 낙원을 이룩하려는가.
너의 다시없는 국가를?

프로메테우스

나는 움직인다. 나는 행동을 하려 한다.
바람 속에 뛰어들겠노라.
거칠고 캄캄한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어라
나의 몸은 밝다
무엇을 주저하리

프로메테우스여. 달리어가라.
내 몸은 빠른 아킬레우스*
내 헛바닥은 순수한 불꽃이어라
나는 지혜 많은 칼타고*의 범과 같도다
나는 약진한다.
나는 나의 이상을 빨리 실현하려 한다

그러나 조바심하는 가슴이어
내 내부의 깊은 뒤설렘이어
(정신은 질서 없이는 지속되지 않느니)
오오. 독수리여. 제우스의 사자여
나의 간을 갹아먹는 악독한 새여
너는 이제 나에게서 떠나야 한다.

너의 날카로운 부리로 찢은 내 몸의 흉터
얼마나 포악한 너의 박해가
나에게 이다지도 큰 시련을 주었던가
나는 안다. 내가 준 불의 어지러운 결과를
나는 비틀거린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나는 파괴된 것을 건설해야 하리

나는 언제나 높고 빛나는
영원한 피라미드를 원한다.

* 아레스 : 그리스 신화의 군신^{軍神}.

* 바빌론 : 서쪽 아시아에 있던 고대왕국 바빌로니아의 서울. 한
때 인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었다.

* 아틀라스 : 어깨로 하늘을 떠받고 있는 거인. 지도의 신.

* 썰라 : 호머의 「오딧세이」에서 오디세우스가 난파하여 떠돌아
다닐 때 지나던 험한 물목을 말함.

* 아킬레우스 : 트로이 전쟁의 용장임.

* 칼타고 : B.C 9세기께 페니키아인들에 의하여 건설되었던 최대
도시.

불춤

동트는 숲속에서 보랏빛
우라노스*의 고요 속에서
피닉스*는 불타는 보석의 나래를 펴고
날아오른다. 하늘로
솟아오른다. 한 잎의 불꽃으로.
찬란하게 벗은 몸뚱어리가
황금가지로 늘어지고
눈부신 백합꽃 수낭이로 뻗어
꽃으로 되어 화살로 되어
봉화로 되어
타오른다.
삼십삼천*의 울려 퍼지는 종소리
삼십삼천 육계 구만리로
웅웅거리는 종소리
성처녀의 신비로운 두 팔이
붉은 명정을 휘날리고
육망의 갈기를 발기발기 찢으며
바람 속 꽃잎으로 부서져
여울에 저서 무수한 꽃잎이 흘러가듯
머나먼 물굽이로 흘러

하늘 밖에 나래치고
셋바람 속에 나래가 무리지고
꽃무등 서고 도약한다.
한 떨기 어여쁜 장미꽃 송아리로
받쳐 이어
솟아오른다. 솟아오른다.
불구슬로
불꽃으로
오, 불멸하는 것, 눈부신 살
광명의 구두사九頭蛇여.
번쩍이는 성性의 오, 번개,
프로메테우스의 누나여.
너의 번개로 내 내부의 우주는 술렁이고
너의 놀라운 날음으로
내 나비의 혼은 되살아난다.
창조의 희망이 네 부리에서 시끄럽게 짓어대고
생각하는 이파리는 모두 날개를 펴
꽃 핀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너는 빛나는 선회를 하며
황금빛 네 손가락이 꿈꾸는 기슭에까지

나의 숨결을 이끌어간다.
 작열하라. 타라. 불타올라라.
 헤스티어*의 긴 머리채
 휘황한 비단실 타래가
 뭉게뭉게 뭉게구름으로 뒤틀어 내리다가
 다시 아슬한 꽃봉오리로 솟아오른다.
 하늘은 타버리는 혼 속에서
 전신을 다해 창백한 빛깔을 외치는구나.
 나는 너의 금강석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미래의 연기를 마시려 한다.
 불타라. 타라. 타라.

* 우라노스 : 광대한 우주 공간.

* 페닉스 :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비로운 새로서 아라비아 사막 중에 서식하는데 500년 또는 1,500년 만에 신단 위에 날아와 스스로 불에 타죽고 다시 그 재 속에서 새끼새가 되어 재생한다 함. 불사조.

* 삼십삼천 : 불교의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삼십삼천(三十三天).

* 헤스티어 : 화로(火爐)의 신.

심추_{深秋}

손 대면 꽃물 들 듯한 나뭇잎들.

연 사과 같은 태양의
눈부시게 쏟아지는 금가루
천산_{千山}에 가을은 짙어가고.

삼각산^{三角山} 밑에서

이 산 밑에 와 있네.
내, 흰 구름송이나 보며
이곳에 있네.

꽃이나 술이나에
묻히어 살던
도연명^{陶淵明}이 아니어라.

어느 땅엔들
가난이야 없으랴만
마음의 가난은 더욱 고달파라.

눈 깨면 환히 열리는 산
눈 어리는 삼각산 기슭
너의 자락에 내 그리움과
아쉬움을 담으리.

소스라쳐 깬 하늘 같은 것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은 것
깊고 또 높은 것이여.

이 산 밑에 와 있네.
내, 흰 구름송이나 보며
이곳에 있네.

이상곡 履霜曲

은 산 붉은 나뭇잎
세월도 늙어
찬란한 익음으로 물들어
꽃 같은 노을이 내리는
나뭇잎.

나뭇잎 이리도 찬란한
골짜기에
서릿바람은 불어와서
쓸쓸한 석양 물기슭에
갈꽃 허연 물
은실머리를 흔드누나.

어데서
자지리지게도 고운 것이 찾아와서
날 나뭇잎 지는 오솔길로
이끌어냄이어.
흰 달빛 아래 서릿발 서격이며
밟고 지내감이어.

세월이 늙는 조용한 이 산속에
내 한 가닥 구름으로나
한 잎 나뭇잎으로나
있으려 했더니만

어디서
남몰래 서릿바람은 불어와서
내 가슴을 뒤설레고 가는 것이어.
뒤설레고 가는 것이어.

주렴珠簾

주렴 드리우라

주렴 밖에

쨍쨍한 햇빛이
저리 눈에 부시니

소슬한 꽃 추녀
육간六間 대청에

분홍색 깨끼저고리

남 갑사치마에
비취옥을 꽃은 가인佳人

주렴 드리우라

별거벗은 몸뚱어리
별거벗은 몸뚱어리
별거벗은 몸뚱어리

이제는
아마존 여족^{여족}들의
방패^{방패}만큼한 한 올 덮개도
기릴 줄이 없다만

주렴 드리우라

주렴 밖에

쨍쨍한 햇빛이

저리 눈에 부시니……

* 아마존 여족^{여족}들의 방패 : 밀튼의 『실락원』에 나오는 말.

백운대 白雲臺

지난 가을날 단풍잎 지던 자리에
쌓이던 고운 것들은 다 갔어라.

화사한 꽃무덤에 모이던
눈 흘림들은 다 갔어라.

이제는 돌아와 서릿발 선 가지
서풍을 향해 눈산을 대해 앉았으니
백발삼천장 白髮三千丈 이 헛말이 아니어라.

4

처용_{處容}은 말한다

유파리노스 송가^{頌歌}

들어라, 바다 한녘에 울려 퍼지는
이 유파리노스*의 노래를
불꽃 튀기며 대리석 부서지는 소리
화사한 꽃밭 일구는 쇠갈퀴의 고향 소리
기둥은 맛있는 백합꽃 대궁으로 일어선다.

눈부신 빛깔의 쌍입으로
층층이 솟아오르는 고층건물
놀라운 힘이 기하학으로
새 바벨탑을 세워 올린다
저곳엔 삼대처럼 공장이 늘어서고
또 저곳엔 꽃처럼 구름처럼
누대^{樓臺}가 솟아오른다
오오 유파리노스의 머리 좋은
숨씨, 하늘을 깎는 손이어
유파리노스여 너의 손길에서
눈부신 칠보^{七寶}의 숲은 떠오르고
너의 머리에 반짝이는
뭇 별자리가 돌아난다.
네 가슴팍은 메트로폴리스의 찬란한 원천이다

네 도시는 장미꽃 천엽 속 같구나
비단 그물과 금고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물구나무 서는 뱀의
황금팔찌를 받들어 올린다
묵은 성 둘레로 너는 하늘 닫는
금발 화관을 둘러싸우고
우리의 산 해무리 지는 골짜기로
무지개 선 안개문으로
석류 항아리의 진주조개의
은빛 벌통들이 포개져
올라간다

하늘은 온통 뒤덮인 바다
금속 돛배가 구름 높을 누비며
바다는 아틀라스의 이마와 발끝을 둘러
물마다 쓴살 같은 가르마를 뺏어놓는구나
구름 녀과 보석의 섬으로
술 취한 디오니소스의 상선들이 떠 흔들리노라.

아테네에서 로마에서 칼타고에서
무화과와 올리브의 향내 떠도는

이오니아의 섬에서
블론디의 벗은 살갗으로 물드는
플로리다의 해안에서
또는 거대한 유방이 솟아오르는
해지는 대륙에서
해 뜨는 동양의 못 항구에서
물결은 쳐밀려온다.
바다는 밝고 세계는 하나다
일어서라, 콤파스 유파리노스의
다락이어
너의 무게는 휘청거리는 메뚜기의
긴 다리로 떠받쳐진다

프로메테우스 너는 보는가
아슬한 이 지적의 매스堆積를
겹겹이 쌓아오르는 바다 비늘
빛나는 이 노적을
인간의 호사스러운 손장난을
너는 보는가.

프로메테우스

나는 가지가지 망령들과 싸워야 한다
변덕스러운 파충류의 음탕한 활과
저 보석을 물린 섬과
무성한 금속성 갈잎들과
나의 섬을 물어뜯는 물결과
회오리바람과 나는 싸워야 한다
음산하고 안이한 것들은 모두 가라
너의 완성을 위하여 너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순수한 것 위에 너를 놓는다
나는 영혼으로부터 나타난다
오오 지고한 예술가
유파리노스여

너는 나의 혼의 불꽃에서 시작한다
바람 부는 도끼, 바퀴를 깎는 대목^{*}이어
너의 제일 빛나는 연장은 너를 아는 일이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
너의 천재 너의 반짝이는 섬광
너의 기묘한 앵무 언어는

소멸하기 쉬운 물거품이다
나는 너의 안개를 거부한다
그러나 유파리노스여, 네가 파괴하고 또 건설하는 동안
찬란한 이 순간을 찬양하라

너의 창조 새로운 변화를
이 다채로운 꽃의 형성을
구가하라.

* 유파리노스 : 그리스의 무명 건축가. 발레리의 「유파리노스」 대화편이 있음.

* 바퀴를 깎는 대목 : 『장자(莊子)』에 나옴.

처용處容 무가巫歌

꽃으로도 고운 모란꽃으로
열두 대문에 환히 핀
함박꽃으로 오너라

봉황음鳳凰吟으로
삼진작三眞勺으로
북전北殿으로
보허자步虛子
학련화대鶴蓮花台
영산회상靈山會相으로
계면界面 돌음으로
만두삽화滿頭插花
칠보홍의七寶紅衣
오방처용五方處容

신라 밝은 날에

나후라*의 인고의 하늘
밤들어 달빛이 적寂하여라
저며 논 보רות 같은 살갓이

역신^{疫神}의 손에 문드러지던 때
내 가슴에 석류알이 쏟아졌나니

들깨지 마라 이 꽃새벽의
꿈의 꽃잎으로부터
환장할 누릴 꿈의 버금의
들레

구름 갠 바닷가에
일곱 마리 용의 오색 찬란한
비늘이 번뜩인다
해가 뜬다

네 참아라 꽃아 도리^{桃李}야
휘젓지 마라
역신이야 처용 탈만 보면
줄행랑이어라

천리를 가리러, 만리를 가리러,
속거천리^{速去千里}하라

산이여 내여 길 열어라
나무아미타불

억만 세계 겹겹의
구슬의 광망으로
땅아 비추어오라

길 밝혀라 처용아
열두 나라 지은 이들
장락태평_{長樂太平}하랴다.

* 나후라 : 범어로 인욕_{忍辱}의 뜻을 가짐. 원뜻은 구요성_{九曜星} 가운데 여덟째 별로서 식신_{食神}이라고도 일컬음.

처용(處容)은 말한다

1

바람아, 휘젓는 정자나무에 못 잎이 다 지겠다
성긴 수풀 속에 수런거리는 가랑잎 소리
소슬한 샷가지 흔드는 소리
휘영청 밝은 달은 천지를 뒤덮는데

깊은 설레임이 나를 되살려놓노라
아아 밤이 나에게 형체를 주고
슬픈 탈 모습에 떠오르는 영혼의
그윽한 부르짖음…….

어찌할까나 무슨 운명의 여신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도 육체에까지
이끌리게 하는가
무슨 목숨의 꽃 한 이파리가
나로 하여금 이다지도 기찬 형용으로
되살아나게 하는가

저 그리운 연뿔은 거친 갈대 우거져서
떠도는 바람결에도 몸을 떨며 체움을 한다

굽이 많은 바다다운 푸른 물거울은
나의 뜰이었어라
밤들어 노니다가 들어와 자리에 보니
가랄이 넷이어라

그리운 그대, 꽃 같은 그대
끌어안은 두 팔 안에 꿀처럼 달고
비단처럼 고옴던 그대,
내가 그대를 떠날 때
어리석은 미련을 남기지 않았어라
꽃물진 그대 살갓이
외람한 역신의 손에 이끌릴 때
나는 너그러운 바다 같은 눈매와
점잖은 맵시로
싱그러운 노래를 부르며
나의 뜰을 내렸노라
나의 뜰, 우리만의 즐거운 그 뜰을

아아 이 무슨 가면 이 무슨 공허한 탈인가
아름다운 것은 멀하여가고

잊기 어려운 회한의 찌꺼기만
천추에 남는구나
그르친 용의 아들이어
치용_{處容}
도_道도 예절도 어떤 관념규제도
내 맘을 편안히 하지는 못한다
지금 빈 달빛을 안고
폐허에 서성이는 나 오오 우스꽝스런
제용이어.

2

모든 것은 흘러가 없어지는가
시간의 여울로
어지러운 잊음의 숲이어
변모한 서라벌이어
빈 절 무너진 성 둘레
떨하고 또 떨하지 않는 대리석의
빛나는 소상들이어
구름 다락과 비단의 거리는 어디 있는가
사랑하며 노닐던 나의 황금 장소는

바이없고
지금 황량한 갈대밭에
바람 달이 설렌다

나의 범절과 나의 몸짓은
다시없는 보물을 잃게 했어라
나는 우환(憂患)하였어라
나는 빈 꿈 여울에서 크낙한
술을 마셨어라
그대는 나를 떠나고
나는 나의 체념의 갈밭을
그지없이 헤맨다
나의 달관은 스스로 나를 버리게 했구나
지금 뉘우친들 무엇하리
홀로 메어지는 슬픔을 안고
여기 서성이노니
하늘과 땅이 나에게 모멸하는
눈살을 던지는 듯
나무는 깔깔대고 돌들은 허허 웃는다

바람에 부서지는 산란한
물
모래
이속한 물거울에 비칠 그림자도
나는 갖지 못하였어라
우수수 듣는 나뭇잎이 낙화^{落花}처럼 내려
찬 눈을 덮을 뿐…….

아아, 나는 유령이 되었는데
형체만 남은 형체도 안 보이는
유령의 그림자여
못내 나는 슬픈 유령이 되고 말았는가
이젠 사랑도 그리움도 없어라
이젠 의젓한 풍채도 높은 금지도 없어졌어라

머리 그득히 꽃 꽃아 밝은 모양에
수삼^{袖衫} 드리워 늘씬한 몸매에
애인 상견하여 윤나는 눈에
산상^{山相} 이속한 긴 눈썹에
홍도화 같이 붉은 입술에

백옥같이 흰 이빨에
칠보^{七寶} 늘이어 수긋한 어깨에
지혜 가득하여 풍만한 가슴에
그리움도 아름다움도
이젠 모두 소용이 없어라

무녀^{巫女}, 네가 성화같이 날 불러외었은들
무엇하리
요사스런 미치광이어
밤 신명의 의붓딸이어
너의 혈은 옷에 펄렁이는 쾌자 자락이랑
징소리에 흔드는 붉은 등치랑
외잡한 네 몸뚱어리의 뒤흔드는 물결은
나를 완구로 만들었을 뿐
너의 수다스런 언어의 주술도
거만하고 실속 없는 나의 화상을 남겼을 뿐
휘황한 궁궐도 춤추던 김 장삼도
나의 서글픈 풍류에 지나지 않는다

무녀^{巫女} 지혜 많은 사생녀여
술하고 오랜 어두운 밤

밤의 목마름이 너로 하여금
을씨년스러운 신화를 지어내게 했구나
신들린 너의 사지, 사시남기처럼
떨리는 손길로
너는 무슨 광명의 불꽃을 가져왔는가
네 기특한 슬기도 이젠 쓸모가 없어졌어라
아무도 네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네 얼굴을 믿지 않는다
나의 태양의 잠든 가지는
재난과 안개에 뒤덮여
희미한 전설의 내음으로 떠돈다.

3

저기엔 내가 불던 옥적^{玉笛}이 굴러 있어라
허무히 빈 갈대가 되어
씨늘한 다락 속에
여인이 버린 패물 조각과
쓸쓸히 지는 나뭇잎과 함께
일찍이는 네 질푸른 목청이
하늘가에 가 서렸더니

사랑하다 밀리는 흐느낌도
저녁노을도 밤바람 소리도
바다 물결도 모두 멎었더니
지금은 잠잠한 가락도 없이
무위한 옥가지가 되어
어둡고 이끼 낀 섬돌 위에 버려졌구나
바다는 뒤설레어 상기 멎지 않고
바람은 부르짖고 물결은 솟아올라
언덕을 물어뜯는다

눈이 부시게 쏟아지는 저
금속의 별빛 소리는 내 것이 아니어라
차고 현란한 위조보석
금강성이 부서지는 불야성은
은하의 별 구름다워라
사월 초파일 황룡사에 높이 현
연등불도 무색하구나
그러나 여기엔 정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찍이 너그럽고도 큰 고래등 같은
기왓집이 섰던 곳에

값싼 모형 건물들이 서서
그 속에 어지러운 장기판이 벌어진다
「황무지」의 허술한 들창가에
간음하는 소리 들린다.

출다 출다
내 품안에
들어오너라
저며 눈 보듯다운 몸뚱어리,
오오 드러난 살갓들이여
아내도 처녀도 없으라
뒤섞인 소란한 수풀 속에
풀어지는 자락은
나라 땅을 가른 장벽만치나
저를 가리지 못하는구나
갈대는 어질머리처럼 흐트러져
은빛 물결은 흔들고
여기 흐르진 성황곳이 열렸는데
야만스러운 인수(人獸)의 다리 얽히어
숨도 헐떡거리며
안간힘을 쓴다

열반이 번져 온 마을에 노을이
타는
이 언덕에
꽃 타는 이 언덕에
언제 머루나무의 새잎이 돌아날 건가
밤 밤 밤
기어오르는 뱀의 헛바닥과 환장할
한바다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움직임과
전신의 혼이 녹아내리는 마디마디는
열병신熱病神에게야 횡갓이어라

바다는 뒤엎질고 물결은 일어난다
바람이 인다 동해 바다
아홉 개의 머리의 용이 솟구쳐올라
천지를 뒤흔드는데
성난 물결을 잠재울 태평의
가락이 없구나.

오오, 처용處容 너는 보는가
변화의 격한 물이랑을

눈부신 세월은 그 위를 지나가고
너에겐 이제 아무 할 일이 없구나
너는 너로 돌아가야 하리
네 자신의 위치로 태양처럼
고독한 너의 장소로
지혜의 뜰, 표범 가죽이 드날리는
그 속으로
동이 튄다

아침 해가 비늘 진 물결 너머로
곰실거리는 용의 허리 너머로
숫아오른다
황금빛 부챗살을 펴고
바람꽃을 헤치며
아득한 푸름의 맞단 곳으로
붉게 불타는 찬란한 구름 높이
이글이글 뒤끓고
진동을 하며
보라색 안개의 가르마 위로
징 같은 태양이 숫아오른다.
오오. 광명의 나래짓이여…….

천마도 天馬圖

천마야, 달려가거라
동해의 하늘로
한 조각 마른 자작나무
껍질의 하늘로
오색 인동 靑冬 무늬의 하늘로
먼 구름으로
먼 아미타불의 하늘로

거기엔 무엇이 있었을까나
거기엔 밝음이 있었을까나
삼국의 풍운의 그 구름의
성을 뚫고 나갈
무슨 찬란한 말씀이라도
있었을까나.

상아의 흠

이 홍옥의 잔등이
어찌면 상아의 흠이러라.
매혹하는 대리석 한 조각
너의 벗은 등허리로
환한 반달이 떠오른다.

고풍

분홍색 회장저고리,
남 끝동 자주 고름,
긴 치맛자락을
살며시 치켜들고
치마 밑으로 하얀
외씨버선이 고와라.
멋들어진 어여머리,
화관 몽두리,
화관 족두리에,
황금 용잠 고와라.
은은한 장지 그리매
새 치장 하고 다소곳이
아침 난간에 섰다.

추호 秋湖

무심코 휘저은 한 물결이
일만 물결로 번져간다
아늑하고 은밀한 이 호수에
한 마리 백조도 와 목욕 감지 않은
이숙한 이 물가에
잠자는 내 아내의 눈썹
여울 속 하늘에 뜬 흰구름도
아무 말이 없으라.

함녕지곡 咸寧之曲

홍포 紅袍 금사 金絲 띠

흑사모 黑紗帽 로

피리 가야금 적대 비껴들고

무고 舞鼓 앞에 앉다

적적한 고궁 뜰에

강화 화문석이 차구나

조용히 울려 퍼지는

함녕지곡

옛 가락은 구름인 양.

그날 변화했던 트락에

빈 자락 깔린 위에

새삼 그윽이 우조 羽調가 흐른다.

시詩

5

수유동운 水踰洞韻

꽃잎 절구^{絶句}

꽃잎이어 그대
다토아 피어
비 바람에 뒤설레며
가는 가냘픈 살갓이어

그대 눈길의
머언 여로^{旅路}에
하늘과 구름
혼자 그리워
붙어져 가노니

저문 산 길가에 저
뒤땡굴지라도
마냥 붉게 타다 가는
환한 목숨이어.

천지天池

밝아오라

너의 높은 연화蓮花로부터

하늘로 솟아오른

너의 크낙한 심연으로부터

신룡神龍이 살아 꿈실거리고

오색영롱한 벽으로

천둥 번개를 하며

진동하는 하늘의

정수리로부터

그 높은 심장으로부터

일월은 천지개벽을 하고

천도화天桃花를 피우고

태초에 하나의 무리의

조상을 낳았나니.

매혹^{魅惑} 1

바람이런가
숨결이런가
내 마음 천길 물속처럼
잠잠한데
내 안의 구석진 기슭에
홀쩍이는 이 갈대는
무엇인가

노을이런가
달빛이런가
내 안의 먼 여울 속
물살 저 쏟아지는
이 보석 조각들은
또 무엇인가

잠 못 이루는
하늘의 호수 속으로
가만히 부르는 소리
한 마리 백조가 날아와
깃드는

꿈결처럼 젖어드는
고운 꽃이파리
애끓는 여울에
구슬의 떨림이
이처럼 사무치는구나.

매혹^{魅惑} 2

내 내부의
저문 늪가에
황금빛 노을은
내리고

잔잔한 노을 속에
꿈결에
다가오는
고운 꽃이파리

잡으면 바스러져
허망한 꿈의 여울로
사라져
없어지리

아아 나는
너의 매력에 이끌려
몸을 떨고
안간힘을 쓰며

너의
햇빛 무덤 위에
쓰러져
나는 죽는다.

어느 날의 꿈

그대가 내 옛 마을에 오고
내가 큼직한 용마름이 보이는
내 옛 집으로
그대를 맞아들였네

집안은 온통 잔칫날처럼
사람은 백결치듯하고
넓은 뜰에는 꽃이 환히 피어 있었네

이른 아침나절에
그대가 잠든 당_ㅁ앞 호숫가에서
내가 작은 마상이를 씻고 있었네.

그대를 깨워 일으키려는
내 막내놈을 제지하고
그대로 하여금 늦잠을 자게 하였네.

그대가 잠든 당_ㅁ앞 호숫가에서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호수 물에서

내 손이 뒤척이는 작은 거룻배에
깨끗한 모래알이 담겼다가
살래살래 씻겨나갔네.

선녀仙女 비천飛天

그대는 천상으로 날아가며
구름 속에 하늘한 꽃이파리
누가 그대를 하늘의 나비로 그려
적笛 불며 깊은 푸름 속으로
날아가게 하였던가
먼 우리 조상들
아득한 고려인들의 신비로운 숨씨가
이곳에 있다
주황색 옷자락을 펄렁거리며
선연히 검은 눈썹이여
금세 피어난 한련화
선녀
애무당
꽃 같은 님의 얼굴이여.

수렵도 狩獵圖

이것은 백마^{白馬}, 이것은 오초마
이것은 용마^{龍馬}
마상^{馬上}의 사람은 모두 점잔도 하다
손엔 화살을 들고
어깨엔 살통을 메었으나
모두 감투를 쓰고
도포처럼 생긴 옷을 입었다

벼랑 밑으로 느슨히 말을 몰아
서로 돌아다보며
무슨 대화^{對話}를 하느냐
평화롭고도 점잖은 사냥꾼들
그대들의 짐승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른다.
그저 미지^{未知}의 숲을 가는 일밖에.

나의 바다

나의 바다 나의 알몸
물결 쳐라 불타올라라
모조리 타서 구름이 되게 하라
바람이 되게 하라
나의 바다
누가 알리
내 바다 속 내밀한 속의
그 눈부시게 빛나는
꽃 섬들을.

강산^{江山} 1

강산^{江山}아 너는 변하지 않았어라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널 떠나 있던 동안 꿈엔들
하마 널 잊었으랴

낮에는 비바람과 싸웠노라
밤에는 서리 위에 잤노라
아아, 쫓기어다니는
나그네의 혼은 고달픈
꿈이었어라

빼앗겼던 내 땅
빼앗겼던 내 나라
내 너를 찾아왔노라
내 널 지켜 살어리랴.

강산江山 2

강江아. 산山아.
내 너를 찾아왔노라
나라는 깨어져도
너는 남아 있었노라

산山도 옛 푸른 산山이요
물도 옛 흐르는 물이어라
옛터에 핀 춘春날 도리桃李도
내가 심근 남길래라

그윽한 물굽이
침침한 산골짜기
여기 내 겨레가 사노라
내 너를 불러 외우노라

강江아. 산山아.
내 널 더불어 살어리라
다시 찾은 내 나라
길이 기루지 않을래냐.

야학野鶴의 부賦

천마산天馬山 건지산乾芝山 월명산月明山

저 푸른 산맥들이 달려와
함께 머무른 곳에
용용溶溶한 큰 강물이 흐른다

아득한 날 술한 세월도
흘렀는데

백제百濟와 신라新羅의 백성들이
잔조로히 모여 사는 곳에
지금 천고千古의 그윽한
가락이 이어 오나니

구름 뜰에 들려오는
열 장구 소리
살구꽃 필 무렵
뱅어 중선에서 들려오는
북 소리 소리

흰 모시 치마와
삼베 쇠코 잠방이

조수에 그을은 거센 손들을 들어
갈대 흔들리는 샛바람에
선다

낙낙落落한 물가에
긴 소나무에
야학野鶴은 일제히 날아
서해西海 푸른 물결 위에
드높이 소리치며…….

나의 필명筆名

나는 '석초石艸'라는 이름을 별호로 생각하고 쓴 일은 없다. 옛날식으로 석초 신응식申應植 어찌고 써놓고서 뽐내 보려는 생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석초 위에다 나의 성인 신자를 붙여 신석초라고 쓰고 있다. 구태여 말하면 나의 필명이다. 응식이라는 이름이 나의 본명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이 이름이 너무 흔할 뿐만 아니라 글자 획수가 많아 쓰기 불편하고 또, 써놓고 보면 시각적으로도 미감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의로 석초라는 이름을 지어 내가 시를 쓰기 시작한 후부터 글자 획수가 적어 간결해 좋고 또 간결한 가운데에도 무언가 의미가 있는 듯도 싶다.

처음에 내가 이 이름을 붙일 때는 무슨 대단한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나의 선조 때 시인이던 석북石北 선생이 있었는데 선생의 호에서 '석石'자를 따왔고 '초艸'자를 붙인 것은 석북 선생의 후예라는 정도의 뜻이 곁들여 있다. 그러나 막상 쓰면서 생각해 보니 돌과 풀은 무슨 초연한 존재라기보다도 일상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 생명이어서 애착이 간다.

그런데 풀 초자인 '艸'자는 속자俗字인 '草'가 아니라 반드시 고자古字인 '艸'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속자를 '石草'

라고 써 놓으면 어쩐지 싱겁고 이미지가 전혀 달라지는 것만 같다.

전화나 편지로 ‘艸’자가 무슨 자냐고 물어 오는 것까지는 고마우나 사람에게 따라서는 ‘艸’자를 태연스럽게 ‘草’자로 써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여 전혀 개명(改名)을 해놓거나 하는 데에는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같은 오해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이름을 끝내 버릴 수가 없다. 나의 친구 가운데에는 ‘艸’를 ‘楚’로 쓰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겐 그대로 ‘石艸’가 좋다.

인생천지 간에 한 조각 구름 같다 하였으니 한 날의 돌이나 풀에다가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좀더 부연하여 돌에 나는 풀이라면 일종의 불멸감마저 든다. 월전(月田) 장(張) 화백이 나에게 돌을 그린 선자(扇子)를 주며 다음과 같은 중국의 유명한 시를 화제(畫題)로 썼다. 나는 그것을 소중한 간직하고 있다. 그의 그림이 신역(神域)에 이른 것도 지보(至寶)이지만 그 시가 나의 이름의 명(銘)과 같아 옷깃을 바로 하게 하는 것이다.

완연(宛然)한 한 덩이 돌이 이끼 푸른 이 들에 누워 있네.

우로(雨露)와 상설(霜雪)이 어찌 다 알리.

원림(園林)은 몇 번이나 성하고 쇠하였으며

꿈나무는 몇 번이나 바뀌었는고.

오직 돌에게 묻노니 돌은 기억하고 있으리.

頑然一塊石 臥此苔階碧
雨露亦不知 霜雪亦不識
園林幾盛衰 花樹幾更易
但問石先生 先生俱記得

나의 고향

지금은 어느덧 맘에 시들하여졌지만 내 고향 한산^{韓山}은 우리집이 조선왕조 오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 온 곳이다. 이곳은 목은^{牧隱}과 석북^{石北}의 시골이다. 지금도 그 일화가 많다.

속리산에서 떨어진 산맥의 한 가지가 남으로 달려 보령 아미산^{娥媚山}과 한산의 지산을 일으켜 놓고 대강^{大江}의 지진 두에 이르러 늘어선 어성산맥이 마치 한 폭 그림과 같다. 또 한 가지는 서해안으로 뻗어내려 오서산과 가야산을 우뚝 솟아올려 비인 월명산과 국사봉에 다다라 머무르고 또 한 가지는 삼남의 절경 덕유산과 전라도 마이산으로 금강을 역으로 휘돌아 올라가 공주의 계룡산이 되었다.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우리 고향은 동북으로 백제 옛터인 부여가 있다. 이름난 백마강이 금강 하류를 남쪽으로 흘러 진강이 되어 황해로 들어가고 서녘은 비인의 마량과 웅천, 대천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해안선으로 둘러 있어 조석으로 창창한 물결이 언덕을 씻는다.

이곳은 가위 산수가 모여 있는 곳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풍수^{風水}들이 많은 발을 멈추고 이중환^{李重煥}은 그의 저서 『택리지^{擇里誌}』에서 가히 살 만한 곳이라고 칭찬하였다. 계절을 따라 이채로운 풍치와 생활이 펼쳐진다.

봄가을과 겨울에는 나는 곧잘 강변으로 해안으로 겨우 사냥을 하러 다녔고, 혹은 깊숙이 보령 청양 산중으로 노루 사냥을 다녔다. 또 진강에는 낚시를 드리워 고기를 낚을 만하다. 요즘은 농어가 한참 날 때다. 백설 같은 농어회가 술상에 올라 입맛을 돋운다.

백마강으로 올라가면 고란사의 석양 종소리에 배를 매고 낙화암과 청류벽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옷깃을 풀며 옛일을 회상할 만하고 서해로 나가면 깨끗한 모래 언덕에 낙락한 노송들이 늘어서서 그 가지에 깃드는 학들이 일제히 깃을 떨쳐 구름 위로 날아오른다. 황망한 바다에서 밀려오는 푸른 물결은 사람의 가슴을 열어젖히고 잔 바람이 삶의 크고 넓음을 느끼게 한다.

이 바다와 강과 산 사이에는 넓은 평야가 가로놓여 있어, 이때쯤 무성하게 자라난 갈밭 같은 벼대가 우거진 논들로 황혼을 지고 돌아오는 농부들의 모습도 한결 시원하다. 어염이 풍부하며 서민들의 생활에 알맞은 곳이다.

한산은 또 자고로 저포_{紵布}의 소산지_{所產地}다. 그러나 잠자리 날개 같은 모시 치마와 적삼을 산뜻하게 입고 나서는 서늘하고 매혹적인 부인의 모습은 고장에서보다도 오히려 이 서울 거리에서 볼 수 있다.

홍매루기紅梅樓記

나에겐 매화 한 그루가 있는데 홍매紅梅이다. 홍매가 있는 나의 집을 나는 '홍매루紅梅樓'라 스스로 이름하였다.

매화는 본디 백매白梅를 상품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홍매에도 또 다른 화사한 멋이 있다. 그리고 나의 집 홍매는 아주 새빨간 진홍으로, 빛깔이 희귀하다. 검붉은 용틀임의 기교한 등걸과 청초하게 빼낸 성긴 가지에 드문 드문 피어나는 빨간 구슬 같은 꽃잎은 아리따움이 겨워 매혹적이다.

홍매루의 문로門路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어 수련이 핀다. 연못가에는 오래 묵은 은행나무와 벽오동이 서 있고, 오동잎 사이로 떠오르는 달을 볼 수 있다. 들쭉나무와 개나리꽃이 어우러진 울타리를 지나 오얏나무들이 서 있는 문비門扉를 거쳐 사랑뜰에 들어서서 홍도·백도와 월계·목단·과초 등이 서 있는 화단을 돌아 대문을 들어서면 등덩굴이 얽힌 중문이 있고, 중문을 들어서면 양편에 목단과 작약과 국화 등의 화단이 둘러 있으며, 화목花木의 숲길을 걸어 뒤뜰로 돌아 들어가 자두와 배, 수밀도 따위의 과일 밭을 지나서 후원 죽림으로 연한다. 임어당의 소설 『북경호일北京好日』에 나오는 '정의원靜宜園'만은 못하지만 좁은 대로 꽃을 보며 소요할 만하다.

나는 가친 병환으로 시골집에 내려와 있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집 서고에 쌓인 고적을 뒤지는 일과 정원에 꽃 가꾸는 일로 소비해 왔다. 그래 어느덧 집이 꽃밭에 묻히게끔 되었다. 홍매는 홍도와 함께 내 정원의 쌍벽이라 하겠다.

내가 이 홍매를 갖게 된 데에는 한 가지 각별한 사연이 있다. 이걸 내가 애써 구해 들인 것이 아니라 이웃 동리에 사는 어느 친구의 어른이 선물로 보내온 것이다. 요 몇 해 전에 그 어른이 나의 노친과 같이 병환으로 위석하게 되었을 때 어느날 나를 청하기에 가 뵈었다더니 마루에 놓인 매화분을 가리키며 무연히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 분매盆梅는 내가 가꿔 오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병들어 누웠으니 내 손으로 가꿀 맛도 없은즉 굳이 이런 데 취미를 갖고 있다니 가져가 내 대신 길러 주게. 춘부장께서도 나처럼 병석에 계신 티이고 하니 꽃이 피면 보여 드리게.”

나는 무어라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어른이 가친과는 매우 자별한 처지요 또 그 어른이 나를 대하는 정리로 생각하여 사양할 길이 없었다. 다만 매화를 기르는 일이 나 같은 속인이 할 바 아님을 말하였으나 그 어른은 굳이 듣질 않았다.

그 어른은 목은 이 선생의 후예로 목은 선생의 송추松楸가 있는 기린봉 밑 이숙한 동리에서 산다. 성품이 맑고 슬기로워 가사 처리를 잘 하기로 근처에 일컫는 분이며, 또 이렇게 의표意表의 멋을 지닌 분이다.

그 어른 댁에 들어서면 남향관 산 밑 정결한 초당에 뜰이 항상 깨끗이 쓸려져 있어 이숙한 절간 같고, 아름다운 화목花木이 눈에 어리어 어느덧 사람으로 하여금 선경仙境에 들어간 듯한 범열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 그는 자기의 호를 매석梅石이라 한다 —. 아무튼 나는 그 친구 어른의 정리로 흥매 한 그루를 가지게 된 셈이지만 그 어른을 존경하는 생각에서든지 혹은 매화의 청고淸高한 멋으로서든지 매양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나는 매화분을 저녁이면 가친이 거처하시는 사랑방에 들여놓고 낮이 되면 양지 바른 마루에 내다놓곤 한다. 거기서는 나의 가친이 누워 계신 곳에서 유리창을 통하여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꽃이 피는 것은 좀 늦다. 거의 3월에 접어들어서야 핀다. 아마 너무 많은 시간을 찬 마루에 내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봄이 채 일러 바람이 쌀쌀하고 밖에는 점설點雪이 흩날릴 제 홀로 봄빛을 맞는 듯 빨강계 영롱히 피어나는 꽃잎은 그야말로 한 점 티끌이 없는 맑고 고운 모습이다. 구슬이 어찌 사람을 이렇게도 매혹하라.

분盆으로 말하면 아주 질박한 소재의 황색 도기이다. 그러나 적당한 윤택이 있고 모양이 아담하여 그와는 대조적으로 화사하게 피어나는 홍매가 일단의 정취를 자아낸다. 매화분으로는 청조淸朝의 화려난만한 회문청자會文靑磁라든지 이조백자 따위의 훌륭한 것이 많겠지만 이런 종류의 것은 차라리 선비의 집엔 어울리지 않으리라.

어느 날 꽃이 활짝 피어 마루가 환하게 빛나고 부드러운 햇빛이 고이 번져들 때 가친이 옛일을 추억하여 말씀 하셨다. 그것은 당신이 젊었을 적 친구 어른 집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다.

이른 아침에 청지기의 안내로 사랑방엘 들어선즉 마침 주인이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4칸 장방에 가득 차도록 굉장히 큰 분매 한 그루가 있어, 분은 윗목에 놓여 있고 나무가 구불구불 번어서 아랫목까지 서려 있었는데, 주인이 자고 난 이불 위에는 낙화가 쳐서 하얀 매화 이파리가 점점이 흩어진 것이 매우 운치가 있었다.

주인은 그것을 내려다보며,

“허허, 내가 매화로 이불삼아 잤구나.”

하고 홍안백발에 낙락한 웃음을 띠더라는 것이다.

옛사람들이 매화를 사랑하는 양엔 이렇게 아취가 있었다. 아니 아취뿐만이 아니라 그에는 높은 사상이 있었다. 우리 옛 시조는 설중매화雪中梅花를 고절청조高節淸操라 읊어 지사志士나 은일사隱逸士에 비겼다. 세상을 도피하여 사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난세에 사람이 지조를 갖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옛날의 시인들은 그것을 하였다. 눈 속의 매화를 찾아 흥금의 깊은 뜻과 고매한 사상을 꽃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게 말하였던 것이다.

목은牧隱이 고려 탕관하던 즈음에 매화에 부쳐 읊은 시 구도 또한 이러한 우의寓意에 다름이 없다.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말하고 보매 내게 윤유현 尹英軒의 심매설잔도 尋梅雪棧圖 한
폭이 있는데 조그만 편화 片畵로, 화법으로 보면 완벽한 것
이 못될지 모르나 화취 畵趣가 소산하여 이러한 시경 詩境이
잘 그려져 있다 하겠다. 자랑삼아 말하여 둔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시경詩經 가르치던 국담菊潭 선생

나는 어려서 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았고 집은 상당히 컸다. 매일 몇 십 명씩 객식구가 들끓었다.

그러나 선친이 꼭 명석한 머리를 가지셔서 사물을 우아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과란곡절이 없이 조용한 가운데 지냈다.

큰 강물을 향하여 청정하게 둘러선 산맥(먼 데서 보면 그것은 마치 꽃안개에 어린 그림 병풍과 같다.), 그 밑에 자리 잡은 우리집은 수십 년 묵은 은행나무와 대추나무와 벽오동과 오얏나무들로 가리어져 있었다. 이 한유한 촌장村莊에는 날마다 손님들이 드나들었다. 안식구들은 손님 접대하기에 여가가 없었다. 나귀를 탄 손님, 가마를 탄 손님으로부터 자전거를 탄 손님까지, 말하자면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손님과 양복을 입은 손님들이 함께 드나들었다.

중세中世풍의 우리 가정은 또 가장 개화되어 있었던 셈이다. 하루 온종일 고풍한 시를 읊는 소리가 당堂을 울리고 숲을 움직이는가 하면, 하루는 엄위한 관청 손님들이 찾아오고, 모자를 쓰고 구두를 신은 손들이 드나들며 사교와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마치 한 폭의 우리나

라 근세 과도기 역사의 화폭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일찍부터 머리를 쥐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반드시 한문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니 그것을 즐겨 읽었다기보다도 강요된 하나의 일과였다.

그 때 초빙되어 와 계시던 선생 권국담權菊潭 장丈을 나는 잊지 못한다. 지금은 오래된 일이라 그 때 일이 일일이는 기억되지 않으나, 국담 선생의 파리한 얼굴과 짧고 성긴 청아한 수염과 엄격하고도 신경질적이기는 했지만 매우 친절하시던 선생의 모습은 지금도 나의 눈에 삼삼하다. 그는 학자라기보다도 문장가였다. 도학道學이나 이학理學을 말하기보다 글을 말하여 주었다. 글씨를 잘 쓰고 서한書翰을 잘 하였다. 그 때 선생은 나에게 시경을 강의하여 주셨는데, 어느 대문에 가서는 당신이 흥을 이기지 못하여 고성대독高聲大讀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절이 대단하시고 성품이 점잖으셨기 때문에 늘 조심성스럽게 시 뜻을 말하여 주셨다. 또 이백과 두보와 소동파를 늘 이야기하여 주셨다. 내가 선친이 바라시던 일을 하지 않고 시를 쓰게 된 것은 아마 이때 영향 받은 때문인지도 모른다.

훨씬 뒷날 내가 선생을 어느 마을에서 찾았을 때에는 선생은 노경에 들어 고독한 생활을 하고 계셨다. 아주 조그만 단칸방에는 사벽이 서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겨우 한 몸을 용납할 정도였다. 그러나 선생님은 나에게 차를 권하며 조용히 한없이 글 이야기를 해 주시던 것이다. ‘음

수독선서(飲水讀仙書) 말은 아마도 이런 분에게만 해당하는 말
인지도 모른다.

두 분의 노^老 할머니

내가 어렸을 때 일로 또 잊지 못할 사람에는 늘 한식구
와 같이 모시고 지내던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시다. 한 분
은 집안 할머니님으로 온양 꽃바위에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
신 꽃바위 할머니님이라 부르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내 진외
가 할머니이신데 우리 할머니의 사촌 올케 되시는 분으로
대실(大室)이라는 데서 사시기 때문에 대실 할머니님이라고 불
렸다. 두 분이 다 머리가 유달리 희셨다. 더욱이 대실 할
머님 머리는 검은 털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금발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며 두 분 모습이 아
주 고상하셨다.

우리 집 할머니님은 수를 하시어 97세에 돌아가신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인정이 대단하신 분으로 그 때에
세 분이 늘 한방에 다정스럽게 기거하셨던 것이다. 세 분
이 다 말씨와 범절이 가륵하시었다.

대실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놀라운 분으로 집안의 관혼
상제나 또 보통 잔치 때에는 으레 그 할머니가 음식을 간
금하셨다. 약과며 약식이며 유병(油餅)이며 전유화까지라도
그 할머니가 만드신 것은 맛이 각별하였다.

꽃바위 할머니님은 글을 잘 하시었다. 그 때 말로 진서와
언문을 모두 하셨다. 이렇게 부인으로는 드물게 보는 유

식한 분으로, 그의 친정 몇 대인가의 조상에 우리나라의 재사로 유명한 북창^{北窓} 정겸^{鄭謙}이라는 명조^{名祖}를 모신 분이다. 글씨가 주옥 같고 찰한^{札翰}을 잘 쓰셨다. 집안의 혼인서와 조장^{弔狀} 같은 내간의 의례서^{儀禮書}는 모두 이 할머님이 맡아 쓰시고, 젊은이들에게 가간서^{家簡書}의 틀을 가르치셨다. 어린 나에게는 『옥루몽^{玉樓夢}』이며 『구운몽^{九雲夢}』이며 고대소설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청초하고도 고결한 모습과 범절 있던 말씨는 나에게 무한한 매력을 느끼게 하여 지금까지 잊히지 않는다.

잔느 시게노 부인

서기 1932년경 나는 일본 동경에 있었다. 나는 법정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보다도 문학에 많은 마음을 쓰고 있었다. 그 때는 내가 발레리의 글을 탐독하던 때이다. 이러한 연유로 나는 프랑스 말을 해 보려는(성공은 못했지만) 야망에 이끌려 있었다. 그래서 이찌가야^{市谷}에 있는 학교 근처의 어느 프랑스어 개인 교수의 문을 두드린 것이 곧 시게노 부인의 집이었다.

그이는 프랑스 여자로서, 일본의 화족의 한 사람인 시게노^{滋野} 자작^{子爵}과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미망인이었다. 40고개를 넘어선 부인은 현철하고 정숙하게 생긴 여인이었다. 젊었을 때에는 매우 아름다웠으리라고 보이는 얼굴 모습과 특히 맑고 상냥한 눈이 미소를 띠 때에는 불현듯 그 지난날에 은밀

히 나타내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비범한 매력의 그림자가 엿보였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부인을 찾았는데 프랑스어 배우는 시간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거기서 지냈다. 부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이야기, 문학 이야기, 그리고 신앙 이야기 같은 것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해 주었다.

부인은 유창하게 일본말을 하였다. 부인의 지식은 상당히 넓었다. 문학과 미술과 또는 의학에까지도 풍부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부인은 본국에서 상당히 좋은 집안에 태어났었다. 1차대전 때에 시게노 자작은 공군사관으로 연합군에 참가하여 프랑스에 가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그들은 연애를 하게 되었다. 대전이 끝나자 함께 일본으로 왔다. 그러나 시게노 집에서는 이국 여인이라 하여 들이지 않았다. 그래 부득이 그들은 밖에서 불여의한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아들을 둘이나 낳고 그를 낙으로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맹장을 앓아 세 차례 수술을 하고 끝내 목숨을 건지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자 여지껏 인연을 끊고 있던 시게노 본가에서는 두 아이를 자기네 혈육이라 하여 빼앗아 데려가고 부인은 역시 거절당하였다. 한꺼번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부인은 시게노 저택의 넓은 담장을 배회하며 아들을 찾아내려 애를 태웠다고 한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한때에는 자살을 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시게노 친구의 알선으로

부인은 뿔 클로델을 만나게 되었다.

뿔 클로델은 내가 동경에 가기 몇 해 전까지도 주일대사로 와 있던 유명한 시인으로, 프랑스 시단에 뿔 발레리와 어깨를 겨누는 거장이다. 클로델 대사는 부인을 보자 대뜸 호령을 하더라는 것이다. '당신은 일본이 프랑스보다 백년이 뒤져 있다는 것을 몰랐던가? 배편을 알선해 줄 테니 당장 돌아가라'고 명령하듯 말하였다. 부인은 아들을 찾으려 돌아갔노라고 약속을 하고 대사의 주선으로 소송을 하게 되었다. 재판은 3년간 계속되었다. 결국 아들은 찾았으나 아들을 찾고 보니 남편의 나라를 버리고 프랑스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혼혈아를 데리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은 경멸을 사는 것이며, 아들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 결심을 하고 잔느 부인은 남편이 입원하였던 병원에 취직을 하고 한편으로는 프랑스어 개인교수를 하여 아들들을 가르치고 생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었다.

부인은 병원에 있으면서 남편의 생명을 앗아간 맹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부인은 남편이 맹장을 앓을 때 수술하였던 것을 후회하였다. 맹장에 대한 신학설은 맹장이 결코 무용한 장물이 아니며, 인체의 한 유기적 부분으로 존재하는 이상 무엇인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장을 운택하게 하는 분비물을 제조하는 곳이다. 그래서 맹장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수술을 할 것이 없으며, 될 수 있으면 내과의 치료를 하는 것이 새로

운 학설이라고 부인은 두터운 의학 서적을 내놓으며 나에게 설명도 하였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내가 그 해에 맹장을 앓게 되어 경응대학(慶應大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외과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하였으나 잔느 부인의 권유로 내과에 입원하여 한 달 만에 완치되어 나왔다. 이것은 혹시 나의 증상이 만성이었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인의 말로 인연하여 칼을 대지 않고 지낸 셈이다. 나는 잔느 부인의 그 친절하고도 매력 있고 진실한 모습을 여지껏 잊지 못한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일이다. 그의 지혜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보아 지금 살아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 아들들은 몸이 가냘프기는 했으나 착하고 강명하게 생겼었는데, 지금쯤 장년들이 되었을 것이다.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선생

사람의 일생에는 누구나 몇 사람의 잊히지 않는 면형을 그의 기억 가운데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잊지 못할 그 사람들과 대단히 친하였다든가, 또는 그렇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그와의 교제가 오래였다든가 잠깐 동안이었다든가 하는 데에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우연한 기회에 그와 알게 되었으나 오래 친할 인연이 없었다든가 또는 나그네 길에서 잠깐 동안 만나고 헤어진 여인이라든가 하는 추억에서도 오히려 잊지 못할 안타까움을 느끼는 수가 있다. 또 가장 잊히지 않는 사람의 일을 평생 말하

지 않고 가슴 속에 간직한다든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나는 일도 있으리라.

아무튼 내가 잊지 못할 몇 사람의 모습 중에서 위당 정인보 선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생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새삼스런 느낌이지만 선생을 추축하는 동안에 나에게 준 귀중한 인상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일본에서 돌아와서 나는 그저 흥똥똥똥 세월을 보냈다. 그 때 나는 생활에 약착하지 않았다. 나는 우연히 월간 잡지 『신조선 新朝鮮』 편집을 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우연에서이고 내가 무슨 그 직職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 때 신조선사社에서는 정다산 선생의 문집 『여유당 전서 與猶堂全書』를 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상은 뒤에서 이 사업에 전력하시는 분이 위당 선생이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격일하여 그분과 만났다.

위당 선생에 대하여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군말이 된다. 그분의 문장과 업적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혀에 올릴 까닭이 없다. 평소에 친근히 보는 그분의 특이한 인상이 젊은 나에게서 감명 깊은 것이었다. 항상 검소한 한복으로 걸어나다니시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이 사업의 뒷받침을 하는 것이었다.

정다산 선생의 유서가 선생 자신이 예언하였던 것과 같이 백년 후에 세상에 발견된 것은 실로 이 정인보 선생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대개는 모른다. 이러한 사업이 그분에게 개인적으로는 하등 이익을 가져오는 것

은 아니었던만, 거의 발분망식하다시피 하여 그것을 추진시킨 것은 오직 선생이 우리 민족 문화에 마음 쓴 지조와 정열의 표현임에 틀림이 없었다.

내가 가장 정인보 선생에게서 받은 인상은 아무래도 이 조 5백년 내 양반 기질을 그대로 계승한 분이라는 점이다. 선생 자신이 그것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질은 몸에 젖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체취가 그러하였으며, 그분의 성격이 사교적이고 기지(機智)에 풍부한 것만으로도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또 바로 회동대신(梅洞大臣)의 후예인 그분이다.

어느 날 내가 내수동택(內需洞宅)으로 선생을 찾았을 때에, 선생은 책상 위에 펼쳐 놓은 맹자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글은 맹자를 따를 만한 게 없단 말이야, 문장을 하려면 맹자를 읽어야 해.”

맹자가 정치의 대도와 인간의 정조를 설파하여 마지않았지만, 얼마나 풍부하고 예리한 그 야유와 기지로 제국의 왕을 굴복시켰던가 하는 것은 참으로 왕조시대 양반들의 흠모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맹자의 문장이 활달하고 조리정연하고 예지의 광휘로 빛나 있는 것은 선생의 말씀대로이다.

그러나 선생은 맹자의 글에서보다도 보다 맹자의 말의 기미(機微)에 더욱 이끌리지 않았었던지. 선생의 남만 못지 않은 기지는 곁에 있으면 언제든지 느낄 수 있었다. 하루는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씨와 안재홍(安在洪)씨, 정인보(鄭仁保)씨 그 밖에

혁혁한 분들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한 일이 있었는데(그 때 나는 창창한 서생이었다) 고하 선생이 시를 지었다 하며 근작 한시 한 구를 흥겹게 외었다. 그리고는 위당 선생에게 어떠냐고 자랑삼아 물었다. 그런데 위당 선생은 깔깔 웃으며, '고하는 시하고는 말 말아!' 하고 흐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것은 고하의 시를 칭찬한 것도 깎은 것도 아니었지만 고하는 정치가이니 위대한 정치나 하려는 뜻으로 들러 국면을 무난히 지냈고, 자리는 즐거웠던 것이다. 일상 사교석상에서 이러한 말씨는 실로 매력적인 것이다.

위당 선생이 이러한 생래의 기지로 어려운 세상에 처하여 부질없이 농세하려 하지 않았음은 또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일념의 고절과 청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조선 왕조의 선비들이 지켜 오고 자궁하고 귀중히 여겨 오던 것임은 물론이다.

해방 전에 나는 우리 선조의 문집을 들고 한강 언덕에 선생을 찾았다. 이 문집은 나의 왕부께서 말년에 창황히 상재^{上宰}하시느라고 불비된 점이 많아서 우리 선친이 개간^{改刊}하려고 늘 계획하시던 것으로 선생에게 산삭^{刪削}을 의뢰하였던 것이다. 선생은 즐겨 승낙하였는데 열독 도중에 해방이 되었고, 선생의 몸은 국사에 불매이게 되었다. 나는 선친 병환 때문에 해방 전부터 향가에 내려가 있었고, 해방 후에는 선생이 국사에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찾아 뵈 기회를 잃고 말았다. 지금 선생의 생사를 모르는 이때 기억이 다시 새로움을 금할 수가 없다.

청포도의 시인 이육사^{李陸史}

내가 친하였던 친구 가운데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이의 한 사람은 이육사이다. 1935년경에 나는 그를 처음 만났는데, 어느덧 죽마고우와 같이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우리의 교우는 그가 1944년 북경에서 옥사하던 때까지 겨우 10년 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매일같이(특별한 일이 있는 외에는) 우리는 함께 있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명동 거리와 진고개 거리의 다방과 바이를 헤매며 시와 인생을 이야기하였다. 그렇다고 우리의 취미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내가 성품이 게으른 대신 그는 항상 바빴다. 내가 침울한 데 비하여 그는 명랑하였다. 그는 마치 뜬구름과 같이 길을 걸었다. 그는 늘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초조한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병긋병긋 웃으며 우울한 빛을 나타내지 않고 가을바람과 같이 삽연^{颯然}하였다.

그가 시를 이야기할 때에는 하찮은 말이라도 시가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가히 그는 청풍명월이었다. 그의 얼굴은 달과 같이 밝고 서늘하였으며, 피부는 유리와 같이 맑고 얇았다. 이것은 아마 그의 단명을 말하고 있었던 것인 지도 모른다. 아무튼 우리는 늘 함께 다녔다. 이것은 좁은 서울에서는 곧 유명하여졌다. 어쩌다 혼자 나가면 사람들이 육사는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친구들이 육사의 소식을 내게 물었고, 나의 소식은 육사에게 물을 정도였다. 어느 때 육사가 볼 일로 여행을 하여 일주일을 서로 보지 못하

다가 명동 거리에서 불쑥 만났는데 짓곳은 이병각(李秉珪) 형이 나와 함께 그 동안 금강산을 갔다왔다고 꾸며 말하자, 그는 분개하여 신경질을 낼 지경이었다. 그는 나보다 문단에 발이 넓었기 때문에 늘 나에게 오는 원고 청탁은 육사를 거쳐서 왔다.

청사(淸史) 조풍연(趙豐衍) 형이 그 때 『문장』 편집을 보고 있었다. 청사는 내 아우와 동창이므로 내가 먼저 알고 있었건만 문단에서는 육사로 다리를 놓고 다시 알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일은 나의 비사교적인 성격과 시를 쓴다면 서도 늘 문단 테두리의 밖을 걸어온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어쨌든 시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영향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의 시는 훨씬 동양적인 맑은 경지를 견고 있었다. 「청포도」와 「호수」 등의 시는 그냥 그대로 그의 면모를 나타낸 것이다. 육사는 또 술을 잘 하였다. 술을 즐겨한다는 것보다도 대 주호이었다. 이백은 하루에 3백 잔을 마신다고 호언하였지만, 그도 그것을 사양치 않을 만한 주호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술을 마셨다. 조금도 떠들지 않고 한없이 술을 마셨다. 우리는 바이나 카페에는 자주 갔고 관음(觀音)에도 가끔 갔다. 그는 기생에게나 바아 여자들에게 외잡하지 않았다. 여인은 꽃과 같이 바라만보고 술을 마셨다. 술이 몹시 취하면 아무 말 없이 구두와 양말을 벗는 정도였다. 나는 술이 약하였지만 이야기를 하며 곧잘 대작해 주었다. 그는 남에게 술을 강권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내가 한 번 즐도한 일이 있는 후로는 조심스

럽게 권하였다.

1938년 가을에 그의 춘당^{椿堂} 수신^{曄辰}에 초대를 받아 나는 그와 대구로 해서 경주를 방문했다. 1940년 가을에는 선친 수신으로 그를 초대하여 부역을 찾았다. 이 두 번 여행은 참으로 잊을 수가 없으며 우리의 시작^{詩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1943년 정초에 우리 둘이는 청량리로 답설을 하러 나갔다. 그때 그는 북경에 갈 것을 말하였다. 북경은 그때 나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험악하였고 중일전쟁은 치열하던 때이다. 나는 선친 병환으로 향가로 내려갔었고 그는 북경엘 갔다가 원통히 생애를 마치게 된 것이다.

이육사의 인물

서기 1935년, 내가 육사를 만난 것은 그해 봄인 것으로 기억된다. 동경에서 돌아와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흥똥거리고 있었다.

나는 가끔 위당 정인보 선생을 찾아다녔다. 당시 위당 선생 덕은 내수동(內需洞)에 있었다. 문을 들어서면 납작한 고가(古家)이었으나 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외형보다는 훨씬 넓은 저택이었다. 서재는 온통 옛날 묵은 한적(漢籍)으로 꽉 들어차서 앉으면 책에 파묻히게 되었다. 그 속에서 선생은 가름하고 가무스름하고 강직하게 생긴 얼굴에 우선 독특한 미소를 띠고 '문장은 고금에 맹자를 덮어 먹을까 없단 말이야하며 『맹자』를 책상 위에 놓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상론으로 해박하고 명랑하고 잔재미 나는 선생의 말씀씨가 어느덧 보학(講學)으로 번져나가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다는 것'의 범열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처음 육사를 알게 되었다. 우리 두 사람의 해후는 참으로 기념할 만한 일이었다. 나는 그를 만나자 곧 친하여져서 마치 죽마고우와 같이 되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구구히 설명하기도 어려우나 그를 만나자 나는 아무런 간격을 느끼지 않고 대할 수 있었다. 나

처럼 껍 내성적이고 쌀쌀한 위인으로도 그와는 처음 인사를 나누는 거북스러움 따위는 느끼지 않아서이다. 아마도 그는 누구에게나 그러한 좋은 첫인상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그러한 외모와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둥근 편이었다. 두렷한 달덩이 같은 얼굴이란 표현은 그와 같은 용모를 말합이리라. 얼굴빛이 그리 희지는 않았지만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고 구김새가 없었다. 한 점 티끌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 위에 상냥하고 관대하고 친밀감을 주는 눈과 조용한 말씨, 제일류의 신사적인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가 생래(生來)로 타고난 천품이었음은 물론이겠으나, 우리나라 유학의 거종(巨宗)을 선조로 한 그의 가계나 또는 그가 중국에 오래 유학하여 그곳의 문물에서 체득해 온 결과라는 것도 또한 의심할 바 없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교우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무렵 위당 선생은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 선생과 함께 다산 문집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간행하기에 진력하고 계셨다. 그때는 일정의 탄압이 한창 고삐를 졸라매고 있었던 때이므로 이 사업은 유일 가능한 합법적인 정신 운동이었으며 민족적으로 매우 대견하고 뜻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졌었다. 신조선사(新朝鮮社)가 그 일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늘 경비가 모자라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중단한다는 소리가 잦았다. 그럴 때마다 배후에서 두 선생이 백방으로 주선하여 자금을 조달해다 대었다. 아마 그분들이

아니었던들 이 사업은 중단되거나 영영 침식되고 말았을
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산이 방대한 저술을 끝내고 남겨
둔 말이 '吾可俟百年矣(내가 백년을 기다리리라)'는 것이었
는데 『여유당전서』가 완간된 것이 그의 1백주기와 때를
같이하였던 것은 이상하다.

신조선사는 이외에 월간잡지 『신조선』을 발행하고 있
었는데 역시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어엿한 편집인
이나 기자記者를 쓰지 못하고 사주社主 혼자서 원고 청탁과
편집, 정리 등을 꾸려 나가고 있었다. 위당 선생으로 하여
가끔 그곳에 들렀던 우리 두 사람은 그 잡지의 편집 일을
돌봐 주게 되었다. 물론 무보수였다. 그래서 전혀 잡지
의 지면을 메우기 위하여 우리의 시작품을 서로 고선考選
하여 심게 된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시작 활동을 하기 비
롯한 최초의 걸음마로 된 것 같다. 이 잡지에 실렸던 육
사의 작품이 「황혼」, 「춘수春愁」 등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실린 작품들이 우리의 데뷔작이
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보다 본격적인 발족은 조금 뒤
에 『자오선子午線』이나 『시학詩學』, 『문장文章』 등에서였다
고 하면 알맞을 것이다.

육사는 그때 벌써 문단과는 꽤 익숙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자오선』, 『시학』 등의 동인이나 편집자들을 잘 알
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서 시작 초고들을 마치
뺏다시피 하며 가져다 그 잡지들에 발표해 주곤 하였다.
심지어 『문장』 편집을 맡아 보고 있었던 청사 조풍연 형

은 육사보다도 내가 먼저 알고 있는 편이었건만 시작 소개만은 육사가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 준 것이다.

그 후로부터 줄곧 육사는 나와 함께 있었다. 1944년 1월에 북경에서 육사하던 때까지 겨우 10년에도 차지 못한 동안이기는 했으나 여행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날마다 같이 지냈다.

아침이면 대개 일찍 그가 명륜동의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집을 나서 명동을 찾아가는 것이 매일과 같은 일과이다. 그때 명동에는 고 이병각 형의 종씨가 경영하던 다방이 있었는데 그곳이 우리 친한 벗들의 근거지로 되어 있었다. 명동과 충무로(그때는 本町)를 휩쓸고 다니며 차를 마시고 노닥거리며 저녁때를 기다린다. 해가 지면 카페, 바아, 때로는 요정으로 술타령이다. 당시 충무로에는 명치옥(明治屋)이라는 과자점에서 좋은 코오피를 마실 수 있었고 환선(丸善)서점은 안성맞춤의 지식의 공급소였다. 그렇다고 육사가 노상 나처럼 한만(閑漫)한 생활만 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의 행동반경은 나보다는 훨씬 넓었고 매우 바빴었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도 몇 번씩 시간 약속이 있다고 하여 자리를 떴다. 그러나 또 우리와 약속한 시간에는 반드시 돌아왔다. 그 동안에 누구와 만났으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것은 그도 말하지 않았고 우리도 굳이 묻지 않았다. 생각하면 지사로서, 지하운동가로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언제나 철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언제나 옷매무새가 단정하고 여름

에도 타이를 풀지 않는 예의바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본래의 성격보다도 어느 필요성에서 각별히 그 일에 신경을 썼던 것인 것도 같다.

어쨌든 그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자기를 결코 과장하지 않았다. 자기의 일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문제의 핵심을 헤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상냥하고 매력 있는 그의 미소가 모든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 그럴 때 그의 얼굴은 주름살 하나 없이 맑으며 예지로 빛났다. 그가 자기의 가계나 출생, 경력에 대하여 별로 말하지 않은 것도 반드시 그의 예의바른 태도에서만은 아니었던 듯싶다.

다만 그가 문학을 이야기할 때, 가령 노신(魯迅)이나 호적(胡適) 등을 이야기할 때, 동양의 고유한 미나 아취를 이야기할 때는 의외로 다변적이고 열렬하였다. 특히 많은 재사(才士)들이 그러하듯이 옛날 시의 명구를 암송할 때는 매우 감격적이고 재치가 있어 보였다. 그는 시문뿐만 아니라 흥이 나서 붓을 들면 글씨도 능하였고 난초나 매화 절지 따위도 곧잘 그렸었다. 시의 낭독은 아주 명수다. 하찮은 날 말이라도 그의 입에 올라 낭송되면 그냥 시로 된다. 약간 가늘고 맑고 감동적인 그 억양, 음조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때는 그냥 낭독으로 좋다고 생각되었던 시작이 나중에 혼자 조용히 읽어보면 별스럽지 않아 웃을 때도 없지 않다. 아무튼 깔끔하고 재주 있고 지순하고 그의 인품은 그대로 그의 모든 작품에 투영되어 있다. 그

중에도 「청포도」와 같은 작품은 가장 잘 그의 지사적인
희구와 무사한 성격, 티끌 없는 명랑성 등이 표출되어 있
는 것이다. 그래서 또 가장 많이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_{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곳에 보이는 ‘흰 돛단배’나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
님’이란 결국 잃어진 조국과 조국을 찾으려 투쟁하는 지사

들의 표징이 틀림이 없고 '하이얀 모시 수건' 등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서정의 필침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이미지는 「연보」와 「소년에게」 등에도 또한 역력히 나타나 있다. 또한 작품 「절정」에서는 일제에 쫓기는 혁명가의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그려냈다.

평생 자기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지 않은 그가 작품 「연보」에서 또는 『연인기戀印記』 등에서 그윽한 소년 시절의 추억의 편린을 토로하였던 것이다. 「연보」는 그가 낙동강 상류 강마을인 원촌에서 나서 소년 시절에 먼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나오던 그 모습을 암시한 것이다. 이것은 개화기를 맞아 조국을 잃고 헤매던 당시 청소년들의 이상과 실의를 읊은 보편적인 상이기도 하다. 그는 그것을 매우 고유한 가락으로 유모어와 명량성을 잃지 않고 읊었다. 수필인 「연인기」는 집에 전해 내려오는 인재印材 하나를 에워싸고 벌어지는 아주 재미나는 일화의 한 토막이다. 그 이야기에서는 그가 자라난 집안의 대대로 이어온 우수한 문翰家文翰家인 것과 그의 형제 다섯 사람들이 모두 각기 자질이 다른 재사才士라는 것이 엿보인다.

그의 집 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그의 형제들이 모두 의가 좋으며 그것은 전혀 그의 모堂母堂의 교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들려준 일이 있다. 그의 어머니는 형제들 사이에 너무 법도만 지키고 있으면 멀어지기 쉬우니 술을 트라고 가르쳐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유가에서 장유유서長幼有序는 가정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규율이었다. 이것을 풀어 주려 한 것은 하나의 혁명적인 사상에 틀림없었다.

그는 그의 모당이 매우 현명한 부인이라는 것을 가끔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가 모부인상^{母夫人喪}을 당하였을 때에는 임종 때의 일을 감동적인 어조로 자세히 말하였다. 모부인은 스스로 임종할 시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 전날 벌써 자부^{子婦}들을 불러 세세히 상례^{喪禮}절차를 분부했다고도 한다. 그분은 왕산^{旺山} 허위^{許薇}의 종질녀^{從姪女}이고 일현^{一軒} 허규^{許珪}의 누이 되는 분이다. 왕산은 합병 때에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며, 투쟁은 실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송상수^{宋相壽}의 「기려수필」에도 기재되어 있다.

육사의 시는 처음에는 낭만주의적 경향이 짙었다. 「황혼」이니 「노정기」니 하는 작품들이 다 그렇다. 그것은 그의 지사적인 기질에서 온 것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그 무렵의 우리나라 시의 조류는 모더니즘으로 풍미되어 있었는데 차차 그 형식주의적인 경향에 반발을 일으키고 있던 때다. 지용^{芝溶}과 기림^{起林}에서 청록파의 시로 옮겨오려던 시기다.

이 동안은 중일전쟁이 치열해지고 일정의 탄압이 날로 심도를 더해 오던 때이기도 하다. 심함에 이르러는 우리의 언어·문자에 대한 말살 정책까지로 번지고 있었다. 하나 서울의 한 귀퉁이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가운데에 우리 어

문으로 된 고전들이 새로운 각광을 받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향가와 고려가사가 다시 들추어내지고 춘향전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고가 주석^{古歌註釋}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우리 민족의 얼의 최후적인 피난처였고 유일한 숨통 구멍임에 다름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보다 밝은 미래를 고지하는 우리 의지의 한 섬광이었던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런 복고적 경향이 낭만주의와 함께 그 무렵 시인들에게 싹틔던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어떠한 위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우리 전통의 산조짐이라 할 만하다.

낭만주의라 하여도 육사는 시어를 결코 과장하지는 않았다. 또 소박한 감상에 젖어들지도 않았다. 항상 그의 인품과 같이 맑고 깨끗한 진주알 같은 의지를 발산한다. 이것은 대부분 그가 중국 문학의 섭렵에서 얻은, 특히 한시의 체험에서 얻은 그 결과이다. 그가 늘 경구와 같이 말하고 있던 ‘樂而不淫, 哀而不傷 — 즐거워도 음하지 않고 슬퍼도 상하지 않는다’는 『시경^{詩經}』 관조장^{關雎章}의 그 경지를 누구보다도 잘 터득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시작에 있어서는 언제나 한시적인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대개의 그의 시가 구법^{句法}이 오율이나 칠률, 혹은 오언·칠언 고시의 그것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와 나는 시를 쓸 때 초고^{草稿} 때부터 서로 먼저 보이고 보고 퇴고하여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의 시의 역정^{歷程}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 때마다 우리는 서로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품집 속에 있는 시는 대부분 내가 초고 때부터 본 적이 있는 작품들이다. 「아편鴉片」, 「아미娥眉」, 「자야곡子夜曲」 등은 우리가 한창 밤거리를 싸다니며 술타령을 하던 때의 작품들이다. 「자야곡子夜曲」은 한위고시漢魏古詩나 이백의 시의 제목에서 나온 것임은 물론이다. 육사답지 않게 우수에 잠긴 작품이긴 하나 아마도 술에 만취하였다가 깨며 허전한 마음을 쓴 것이리라. 그는 술을 잘 하였다. 잘 하였다기보다도 대주호大酒豪였다. 일정 말기에는 서울에서도 술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 막걸리 배급을 받았었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시절에는 곳곳에 유명한 선술집이 많았다. 그 무렵 동대문 안에는 우리의 단골 술집인 찹쌀 막걸리집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동동'이라고 불렀었다. 물론 고려가사 '동동'에서 나온 이름이다.

어느 날 꼭두새벽에 그곳에서 해장을 하게 되었는데(아마도 어느 요정에서 밤을 새고 나온 때이리라) 그가 곱빼기로 연거푸 아홉 사발을 마시고도 끄떡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렇듯 주량이 컸었다. 그러나 취하지 않는 주호였다. 밤이 새도록 마셔도 싫어하지 않았지만 떠들지도 않았다. 만취하면 조용히 잠자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술을 별로 시에 쓰지 않는 주호였다. 이백은 말술을 사양하지 않고 일생을 술로 떠들어댔지만 육사는 조용히 말술을 마시는 시인이었다. 우리는 화사로운 바이나 요정에도 더러 들렀고, 물론

아는 기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육사는 여자에게 담담한 주객이었다. 결코 여자에게 친압親狎하지 않는 신사였다. 이런 태도는 모든 여성에 대하여 마찬가지였다. 아마 이것도 구국지사로서의 그가 정신 단련에 필요로 했던 하나의 계율이었던 것 같다. 다만 나는 그에게도 단 한 사람의 비밀한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있다. 나는 단 한번 면발치에서 그 여성을 바라다 본 일이 있다. 그는 그 이상 그 여인의 정체를 밝히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작품 「반묘班猫」와 「해후邂逅」 등은 그 영원한 여인에게 준 꽃다발이다.

육사의 시가 원숙해짐에 따라 그의 언어는 더욱 심오해지고 침중沈重한 상징주의의 빛깔로 물들어 갔었다. 상징주의 시라고 하면 프랑스의 보들레르나 베를레느를 수입하였던 백조 시대의 우울하고 퇴폐적인 작품 경향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육사의 시에는 그러한 그늘이 없었다. 우리의 시가 상징적 수법으로 접근해 간 것은 그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같은 수법이 아니고는 당시 우리가 관념하는 것들을 표현하기는 도저히 어려웠던 것이다. 그 무렵의 작품 중에 「교목喬木」과 「호수」 등은 참으로 절품이다. 이 작품들이야말로 다시는 고쳐 쓸 수 없는 순수시라 할 만하다. 낭만주의건 상징주의건 서구시에서 온 개념의 시형식이기는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그 수법상으로는만 말한다면 동양의 시가 이미 오래 전에 실험해 온 것이다. 어느 시에나 작건 크건 그러한 요소에 작품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그의 역작의 하나인 「편북(蝙蝠)」은 조선 총독부 검열관의 손에 압수되고 말았었다. 나는 어디선가 이 작품이 압수되어 원고조차 없어진 것이 애석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후 초고가 발견되어 시집 속에 수록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1941년 『문장』지가 4월호를 내고 폐간하였다. 폐간사辭에는 간단히 ‘국책(國策)에 순응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폐간호 『문장』지를 펼쳐보면 우리의 독무대다. 육사의 작품으로는 「중국문학사」 논문과 시 세 편이 실려 있고, 나의 작품으로는 「발레리 연구」 논문과 시 두 편이 실려 있다. 모두 미리 청탁해 둔 것을 마지막 한꺼번에 실은 것 이리라. 그 후로는 글 쓰는 사람들은 일본어로 쓰거나 일본을 찬양하고 전쟁을 고무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었다. 전쟁은 벌써 제2차 세계대전으로 번져 혼선을 이루고 있었으며, 우리는 모두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항간에는 지식인들의 염마장이 작성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떠돌고 있었다. 시인들은 붓을 쥐고 침묵을 지키고 그리고 흠어들었다.

우리는 거리에서 사랑방으로 숨어들어갔다. 몇몇 친한 친구끼리 장소를 옮겨 가며 작은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때일수록 술과 시가 없을 수 없다. 술은 서울에서 배급제를 쓰게 되어 얻어 마시기가 어려운 때이므로 대개 주부들이 솜씨를 내어 가양(家釀)을 해댔다. 시는 이 같은 모임에

는 한시가 아주 적격이다. 시가 본래 처음은 노래로서 실생활에서 우러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시는 특히 교우나 사교생활에 밀착해 온 것이다. 시에 증贈·기寄·유별留別·송送·수답酬答·유연遊宴·등현登賢 등의 분류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대의 시를 읽어보면 혼자 자기 생각을 읊은 것보다도 친구와 만나 수작한다거나 작별한다거나 친구에게 보낸다거나 하는 작품이 월등히 많다. 구조상으로도 한시는 모임에서 즉흥적으로 만들기가 쉽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글자와 행과 음률이 일정한 규격이 있어 그 규격에 언어를 맞추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기 천부적인 재질이나 수련에 의하여 성구成句가 천변만화하는 것이 기이할 정도이다.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한시는 재질에 따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구절이 튀어나와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시회詩會가 성립되는 소이다. 두보는 ‘語不驚人死不休’라고 하여 이 경인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육사는 한시에도 능하였다. 남처럼 떠들거나 괴로움(시를 낳는 괴로움)을 하는 빛도 없이 조용히 구상하고 조용히 불렀건만 항상 신선한 시구가 좌중의 흥미를 돋구었었다. 시집 속에 실린 「만등동산晩登東山」은 내가 시골에 내려가려던 전날, 모여 읊은 것이다. 그래 ‘귀주歸舟’란 말이 나온 것이다.

그 무렵 나는 선친 병환으로 시탕恃湯을 하느라고 시골에 가 오래 있었다. 그러나 병환이 만성적이었기 때문에

자주 서울에 올라왔다. 그럴 때마다 곧 친구들이 모이고 시회가 열리곤 하였다. 이러한 일은 육사가 북경에서 원통히 서거한 그 무렵까지 죽 계속되었다.

육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머리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1943년 1월 신조의 일이고, 그해 가을 육사가 잠시 귀국했다가 일본 관헌들에게 붙들려 북경으로 압송되던 일이다. 그 때는 양력 설에 역시 철시를 하고 문을 닫고 하였지만 설을 쇠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양력으로 거의 설을 쇠지 않는 것은 일정에 대한 무언의 저항으로까지 여겨졌던 때다. 그래서 1월 1일은 집에 들어앉아 찾아오는 이도 없이 책을 뒤적거리거나 땡굴땡굴하며 낮잠을 자거나 하는 우울한 날이다.

1943년 신정은 큰 눈이 내려 온통 서울이 새하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아침 일찍이 육사가 찾아왔었다. 그리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재촉하여 답설踏雪을 하러 가자고 하였었다. 중국사람들은 신정에 으레 답설을 한다는 것이다.

조금 뒤에 우리는 청량리에서 홍릉 쪽으로 은세계와 같은 눈길을 걸어갔다. 우리의 발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업시험장 깊숙이 말끔한 원림 속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울창한 숲은 온통 눈꽃이 피어 가지들이 용사龍蛇로 늘 어지고, 길 양쪽에 잘 매만져진 화초 위로 화사한 햇빛이 깔려 있었다. 햇빛은 눈 위에 반짝이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금방 돌아날 것만 같았다.

“가까운 날에 나는 북경엘 가려네.”

하고 육사는 문득 말하였다. 나는 적이 가슴이 설레임을 느꼈다. 한창 정세가 험난하고 위급해지고 있는 판국에 그가 북경행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케 하고 있었다. 그 때 북경 길은 독도만큼이나 어려운 길이었다. 나는 가만히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나 다름없이 상냥하고 사무사^{思無邪}한 표정이었다. 봄에 그는 표연히 북경을 향해 떠나간 것이다.

그해 늦가을에 서울에 올라와 보니 뜻밖에도 육사가 귀국해 있었다. 그 때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곧 친구들을 모아 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래 우리집에 모두 모였는데 육사 형제가 나타나질 않았다. 우리는 불안한 예감으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과연 밤늦게야 그의 아우가 와서 육사는 헌병대가 와서 체포하여 북경으로 압송해 갔다는 말을 전했다. 우리는 절망하였다. 그리고 분통과 충격으로 한동안 묵연하여 술잔을 들지 못하였다. 이래서 그는 이듬해 1월 16일 북경 옥사에서 불귀^{不歸}의 객이 되고 말았다.

그는 40세의 짧은 생애를 조국에 바쳐 열렬히 산 풍운아였다.

그의 겸허한 얼굴은 언제나 폭풍우 앞의 정적과 같은 그러한 고요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 혼의 불꽃을 시로 불태웠다. 그가 서거한 후 그의 아우가 수습한 유고^{遺稿} 「광야」와 「꽃」은 그냥 신어^{神語}이고 바로 그 혼의 불꽃의 결정이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옛날부터 천재적인 시인은 죽기 전에 절명사(絶命詞)를 남겨 놓는다고 한다. 「광야」는 그에게 있어 그 절명사의 느낌이 있다. 이것은 벌써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나 죽음의 커다란 공허 속에도 오히려 한 줄기 바람을 주는 것은 그의 무구한 지성 때문이리라. 이 시는 다음과 같은 결구(結句)로 맺어져 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나의 시 정신과 방법

나는 과장하는 말 같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나의 시 작_{詩作}의 비밀은 나의 작품 그것이 무엇보다도 잘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각 그것에서 각자의 상이한, 또는 비슷 비슷한 견해를 이끌어낸다 — 이것 없이는 세상의 문학평론가들이 할 일도 없어지는 셈이다 — 발표된 작품이란 벌써 자기의 것은 아니라고 발레리는 말하였다. 그것은 독자의 것이다. 독자들에 의하여 독자들의 관견_{管見}에 의하여 독자들의 견식에 의하여 그 취미성에 의하여 향수_{享受}되고 그리고 거기서 각자 자기다운 그럴 듯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바라춤」과 「처용은 말한다」를 발표하고 많은 세평_{世評}을 들어왔다. 그 중에는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당하게 헐뜯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궤념하려고도 않았고, 또 궤념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칭찬하는 사람이나 나를 헐뜯는 사람이나 어떠한 짐작에서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 작품이란 하나의 우연에서 산출된다. 그것은 어떠한 — 자기도 생각지 않은 — 예감에서 떠오르는 시적인 구성이라든지 소재의 연마라든지 언어의 조탁_{彫琢}이라든지 하는 수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은 처음부

터 의식적인 어느 목적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우발적인 계기에 의해서 탄생된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작자의 에스프리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보다 잠재적인 것이다. 산문과 같이는 하지 않는다. 굳이 말한다면 시 작품은 시인의 경험에서 얻은 감각에서 발생한다. 일찍이 에드가 앨런 포우는 이것을 우주적인 감각이라고 하였다.

나는 여기에 조금도 모호한 말을 하지 않으려다. 포우가 말한 우주적인 감각이라는 말은 하등 신비성을 내포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인이 시를 낳는 상황 그것의 단초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우주적이란 이 어휘도 현대에 있어서는 훨씬 다른 이미지를 부여한다. 우주 그 자체가 현대인에게는 감각적인 대상이기보다는 계량되고 가견적^{可見的}인 실체로 영상되고 지적인 폭을 넓혀가고 있을 뿐이다. — 모든 작품 정신은 결국 작자의 생활 경험·교양·습성, 그의 시대성에서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작도 이같은 정신의 메카니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나도 영감이란 말은 그다지 믿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시의 우발적인 탄생도 필연 시인의 재능, 그의 지식, 독서의 경험에서 쌓은 사상의 결과인 것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내가 한 편의 시 작품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에는 나의 소망, 또는 몇 권의 책에서 얻은 조금씩의 영양이 작용한 셈이다.

나는 생래로 순수한 한국적인 가정 —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습이 어디보다도 완고했기 때문이다 — 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처음에 한학적인 학습, 특히 시에 있어서는 시전^{詩傳}과 당시^{唐詩}로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서구의 시에 접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다시 되돌아와 우리의 시가인 향가나 고려가사^{高麗歌詞}나 시조 등을 섭렵하였다. 이러한 나의 경험은 나의 작품 가운데에 일종의 정신의 혼합물을 담아 온 셈이다.

한편에는 동양적인·한국적인 어느 것, 또 한편에는 서구적인 것, 그리고 대별하여 두 개의 정신적 패턴은 서로 상이한 얼굴을 하고 상극하고 힐항^{詰抗}하여 하나의 오뇌하는 야누스의 상을 보여 주는 것 같다. 나는 정신의 이 창해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 하나 좀처럼 나르시스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처용 시 가운데서 나는 이 같은 자기의 상모^{相貌}를 나타낸 셈이다.

그러나 내가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가에는 전형적인 고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오해되기 쉬운 말이다. 우리 시에는 운율의 고전적인 제약성도 규격도 없다. 시조가 하나의 정형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너무 단시형^{短詩型}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일은 우리 시작에 새로운 영역을 남겨 놓고 있는 것만 같이 생각된다.

시는 늙지 않는다

신시新詩 60주년을 맞는 한국의 시단은 그 연륜에 견주어 아직도 파랗게 젊다.

1908년 11월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주간의 『소년』지 창간호에 권두시로 실렸던 이른바 신체시「해에게서 소년에게」의 출현은 당시에 있어서는 분명 하나의 경이驚異였음에 틀림이 없었다.

전형적인 음률적인 한시漢詩와 시조의 테두리 안에서 산문 구조로 된 서구식 자유시의 도입은 전혀 혁명적인 일이기까지 하였다.

우리 근대 문학의 남상濫觴이었던 그 시절에서 보면 오늘날의 한국시는 문자 그대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있을 만큼 변화하였다. 그러나 우리 시단은 그만큼 노숙老熟한 것은 아니다. 노쇠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젊고 싱싱해 간다. 원래 시는 늙지 않는다. 사람이 늙을 뿐이다. 시대와 더불어 생각이 변화해 갈 뿐이다.

시는 오늘에 쓰이지만 내일에 읽히고 내일을 산다고 한다. 그 중에도 뛰어난 작품은 영원으로 이어나가기도 하는 것이다. 2천 년 뒤에 호머가 읽혀지고, 이백과 두보가 읽혀지는 것이다.

한국 시의 60년은 저항과 의지로 얼룩진 반 세기였다.

처음 40년 동안은 일본 민족 지배의 정신적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시종하였다. 남달리 민감하게 누구보다도 먼저 근대 의식에 눈떴던 시인들은 곧 일본의 권력과 맞서게 되었다. 초기 시인 가운데 최남선은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한용운은 33인 중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애통하게 읊은 이상화의 시도 나라를 잃은 민족의 분노와 비애의 표현이었다. 고유한 흥겨움의 정서보다는 애뜻함과 절망과의 몸부림이 앞섰다. 고유 정서나 전통이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그 뒤 우리의 언어가 자유를 상실하려 할 무렵이었던 것이다.

절망적이고 애잔한 우리 시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아무래도 1945년 해방이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유가 날개를 폈다.

창조 의식의 시야는 폭이 넓어지고 세기의 물결이 불러 일으키는 새로운 자극이 시의 모든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였다. 영감보다도 실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폐허』나 『백조』 시대처럼 그렇게 로맨틱하지는 못했을까 모르나 다채다양^{多彩多様}한 스타일의 시가 이 땅에 개화하였다.

지난 20년 동안은 시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난 시기다. 약 300명의 젊은 시인이 현 문단에 자기 나름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시의 발흥^{勃興}이 한갓 시인의 양산만으로 따질 것은 못 된다 하더라도 60년 동안의 시단에 일찍이 결코 없었던 일이다. 그러면서도 희망적인 일은 모

두 개성적이고 또 자기대로의 눈부신 빛깔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가 신체시 이래로 부단히 서구시의 도전과 침투를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이지만 더 좀 폭넓은 세계로 안목을 돌리면서 복잡한 변화 속에서도 무언가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시 정신은 살아 있다. 아직도 우리 시단은 젊다.

우리 시는 난숙 문화기 로마가 아니라 문예부흥기의 피렌체로 통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에게 대시인, 대국민 시인(大國民詩人)이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이 아쉽다. 우리는 6·25때와 같은 미증유의 인간 비극을 겪어 왔다. 멀지 않아 그 큰 메아리도 들려올 것이다.

한국시의 변화와 계속성

—세계 문화 자유 창 의 세미나 주제 발표

한국의 시는 현재 우리 문학에 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고 할 만큼 풍부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의 시가 걸어온 모든 유파 형식(流派形式), 여러 나라의
언어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초월한 구성 수법 등을 구사하
는 작품들이 일찍이 없었던 모습으로 일시에 피어나 마치
난만한 개화기를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화려·다채로운
시의 다양한 상태는 우리 신문학의 역사에서 1920년대의
백조 시대(白潮時代) 이외에는 단연코 없었다. 우리가 백조 시
대를 시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오늘이야말로 바로 시의 시
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 문단에는 2~3의 순문예지 및 시지(詩誌)가 발간
되었고 열 손가락을 꼽는 경향의 시동인지가 있으며 그
밖에 종합지, 신문 등에 발표되는 작품이 매월 평균 30~40
여 편은 착실히 되며 기성·신인을 합친 현역 리스트에 오
른 시인 수는 약 3백 명으로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창작 경력은 얼른 유형화하기 어려운 만큼 다기다양(多岐多
樣)한 요소를 혼유(混有)하여 있기 때문에 한층 순란한 외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한 아픔의 상징주의, 한 아픔의 낭만주의, 한
아픔의 쉬르 리얼리즘, 한 아픔의 주지주의, 한 아픔의 실

존주의, 전위시적인 수법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꽃떨기가 뒤섞이고 공존하여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어느 평론가는 바로 우리 시의 '실험시대'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서구의 시인들이 1세기에 걸쳐 한 일들을 우리 시인들은 해방 후 20년 동안에 하고 있는 느낌이다. 더구나 백조 시대는 주로 프랑스의 시에서 그 양식을 구했었고, 또 그것을 대개는 일본을 통하여 하였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적 섭취의 영역을 영국과 미국으로 또는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또 직접 그곳의 원어에 의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리의 시 시대의 출현을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여야 할 것인가? 더구나 현대는 시를 그다지 잘 읽지 않는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서구 시는 격렬한 변모를 해왔으며 점차 복잡화하는 세계 문명 상황에 대한 지적 대응력이 시 영역에 있어서도 그대로 복잡성을 띠어 혼란스러운 빛깔로 나타났다. 두 차례나 겪은 대규모의 전화^{戰火} 가운데서 경험한 파괴와 죽음과 생존, 모든 가치관의 변동이 어김없이 시적 감성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정신 상황은 시를 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판판인 이질적인 풍토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1915년경부터 서구의 일각에 일어났던 다다이즘이니 큐비즘이니 슈트 리얼리즘이니 하는 회화와 시의 사조가 이미 그 지적 징후를 보여 조고는 있었지만 시는 점차 명정

한 감성을 떠나서 엉뚱한 판타지와 일종의 바바리즘으로 기울어지고 회삽^{晦澀}한 암유^{暗喻}, 복잡한 이미지, 기교의 비법화^{秘法化}로 대중에게서 외면해 가고 시는 강한 자의식에 의한 시인의 자오물^{自娛物}로 화하였다.

한편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시가 잠재 의식의 내면 심화 작업으로 변하여 소위 '노래하는 시'에서 '읽는 시' '사색하는 시'로 개용^{改容}되고 더욱더 독자를 멀리하고 난해해져 왔다. 정형을 해체하고 시에 대한 일종의 파괴 작업이 일어난 것이다.

시는 일찍이 말라르메나 발레리가 생각하던 그렇게도 숭고하고 명정한 순수 이상으로부터 비껴나가고 있다. 현대의 뮤즈는 명상하는 갈대밭이나 아름다운 아침 숲이나 영원한 되프리의 바다보다도 복잡거리고 덜커덕거리고 뒤시끄러운 첩관길을 폭하는 셈이다. 시트웰이 말하듯이 '위대한 아침의 빛'이 아니라 '귀가 먹어 버린' 현대의 시는 딱딱한 의미도 없는 낱말을 멋대로 늘어놓고 알기 힘든 시만 읽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를 영영 외면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시인만이 애써 읽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가 일찍이 없었던 전성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 현상은 놀라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 나도 약간의 나의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바가 아니다. 완전 중국의 당나라 때의 시 시대를 연상시키는 이 풍성함은 반드시 내실적인 완전한 계속성

이 있는 것의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성당^{盛唐}의 거대한 시대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차라리 만당^{晚唐}의 군집시인들이 나와 기려취미^{綺麗趣味}와 문채의 수식으로 일세를 풍미하던 그러한 시대를 생각해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시가 이렇게 성황을 이루고 있는 일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와 시대성이 그것을 희구하고 있기 때문임에는 틀림이 없다. 언제나 역사가 격렬한 변동을 일으킬 때에는 먼저 시를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시는 바로 시슬에서 풀린 프로메테우스의 새로운 의지와 행동의 초려^{焦慮}가 압도적인 시대로서 사회의 격동·혼돈·역조·현실의 괴리·좌절감 같은 것이 우리에게 시적 충동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시는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고 격렬한 감각적인 문학 장르인 것이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서구 문학의 모든 경험과 양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이 정신 영해^{精神領海}는 우리에게 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일찍이 없이 밝게 열려 온 이 한국시의 아침에 그 위대한 빛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다양한 형식, 다채로운 기교, 서구의 현대 시인들이 해 온 시의 해체 작업을 여기서 실험하며 독자와는 멀리 떨어져 갈 제각각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는 어디엔가 공소^{公套}騷하고 공허한 감이 없지 않다. 저곳에서는 이미 그러한 실험이 끝나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작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실험은 실은 소멸되기 쉬운 당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며 I.A. 리처즈가 말한 '경험의 정립화'로 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문화는 계속적인 것과 비계속적인 것이 있다고 하지만 묵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용을 해 가면서도 항상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것만 남겨지게 마련이다. 우리도 이 화려한 변용과 모색 속에서 뭔가 완전한 전형을 찾아내야 하고 질서를 잡아 가야 할 것이며 참으로 자기다운 얼굴을 한 우리말의 시로서의 영원성이 있는 것을 남겨가야 할 것이다.

확실히 우리 시는 현대에 와서 광범한 가능성의 바다에 놓여져 있으며 우리 시는 단순한 한국의 시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시로서 점차로 세계 문학 가운데에 침투되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민족적인 것만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괴테는 말하였다. 이것은 시문학에 있어서도 타당한 말인 것 같다. 협의(俠義) 로칼리즘이나 소비니즘이 아니라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가장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고르의 성용(聖容)은 인도의 고뇌를 그렸고, 그것이 인류적인 기원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에이츠의 심수(深澗)는 그의 시가 강인한 에이레의 민족성을 그렸기 때문이며, 발레리의 완벽은 그의 프랑스적인 지성에서 산출된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영국적이었던 것과 같이 엘리엇도 또한 영국적이다. 우리 시 분야에 있어서도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맹아(萌芽)가 어느 한 구석에선가 싹트고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 싹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이상화하는 데까지 키워 나가야 할 것인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식자들이 이미 주지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부연해 보고자 한다. 사실 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시의 전형으로 될 만한 진정한 의미로서의 고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엘리어트는 서구 시 가운데 고전은 로마의 시인 버어질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는데 엘리어트의 이 주장은 고전을 클래식적인 전형의 의미로서 생각한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서라도 우리 역대 시가의 유산 가운데에는 우리 시의 전형으로 되고 엘리어트가 말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나갈 만한' 작품을 발견하기는 거의 어렵다.

한국 시가는 역사를 통하여 각 시대가 한시의 영향 밑에 있었고, 근세 시문학에서는 서구의 자유시를 받아들였다. 신라시대에 있어서부터 최치원 등이 당나라에 유학함으로써 한자 언어로 시작을 하였으며, 고려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신라·고려 양조의 작품이 전해 내려온 것은 드물다. 여말에 이르러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과 상국^{相國} ^{李奎報}와 같은 시인이 나오면서부터 조선 왕조 5백년 동안은 실로 수많은 시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모두 한시의 정형을 도습해 왔고 그 중에도 이백과 두보를 시종^{詩宗}으로 삼았다. 특히 두보를 존송하고 습득해 온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는 이백과 두보는 동양의 시에 있어 고전이라 일컬을 만하다.

물론 한국의 역대 시가가 한자 문화권에 있었다는 것은 서구 여러 나라의 시의 원천이 그리스·로마 문학에 있었던 것과 궤軌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국조國祖의 시가 언어 및 형식에 있어서 중국 문학에 의존했다 하더라도 내용까지 한국적인 정서를 배제한 것이 아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그리스·로마어가 구라파의 모든 나라의 말을 지배했듯이 한자어가 우리말을 억누른 중세적인 경향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깊었다.

우리말로 창작된 시가, 신라 향가나 고려 가사나 시조 등은 한시에 의하여 경시되어 왔으며 한자어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문학에 들어섰지만, 한시에서나 우리말 시가에서나 우리 시를 전형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언어 자체로도 순수한 우리말이 겨우 명맥을 이어 내려온 것은 민속과 민요, 구비문학口碑文學과 약간의 내간문학內簡文學에 의하여서 뿐이다. 우리 언어, 문자가 자기를 찾고 제대로 걸음을 걷게 된 것도 참으로 반세기를 지내지 못한 최근세의 일이다.

한국 시가 얼른 전형화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형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커다란 딜레마는 시인들 자체에도 있다 하겠지만 우리 언어의 난점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언어 문자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였고 언어 순화도 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휘·음운·문법 등이 아직 미해결의 장章에 있다. 우리 언어는 시작을 위하여 묘

사에 있어서나 또는 정형화에 있어서나 아직 명확한 연구도 되어 있지 않으며 확실한 가능성의 보증까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막연히 이에 대한 반성도 없이 혼란스럽고 뒤시끄러운 언어의 돌발에 놓여져 있다.

우리가 우리 언어 문자를 재발견하고 우리의 고유한 것에 눈을 돌렸을 때는 벌써 우리 시의 안목은 서구로 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신문학은 약 40년 전에 그렇게 동경과 이상으로 가득 찬 백조 시대를 출현시키기도 했고 우리 신시新詩는 전혀 새로운 영토에서 얼마간의 기념할 만한 작품도 남겨놓았다. 그 중에도 상화尙火와 소월素月과 영광永郎은 우리 언어와 정서를 시에 적용하는 데 천재성을 보여 주었고 또 어느 정도 성공적인 시인들이었다. 하지만 상화의 센티멘털리즘과 소월의 소박한 리리시즘과 영광의 로칼리즘이 현대의 복잡한 지성 감각에 수용되지 못하고 쇠퇴되어 있다. 서구시가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은 폭넓은 풍부한 세계 이상과 지적인 빛깔과 고뇌와 다채로운 이미지와 복잡한 상징 방법들이고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고유한 것들이다.

‘한 새로운 예술 작품이 창작될 때 일어나는 것은 그 이전의 모든 예술 작품에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엘리엇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의 과거의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어의 장벽으로 단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유한 것의 탐구를 그 속박성으로 외면해 가면서 어디서 한국적인 전통과 역사의식 같은 것을 찾아 올 것인가

가? 우리는 아득한 망각의 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방대한 한자어 문학과 신시의 작품 경험을 재검토하고 시어 탐구 내지 개조를 하는 차근차근한 일을 해야 하며 거기에서 무엇인가 새것을 재창조,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 같다. 하여간 우리 시인들은 폭넓은 세계 시의 바람이 휩쓰는 언어의 황무지에서 고달픈 시련을 겪고 있다. 일견 화려하다 할 만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나의 문학文學

1935년경 나는 동경에 있었다. 나는 어느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학교는 별제위명(別濟爲名)이었다. 학업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말하자면 사색의 심연을 헤매고 있었다. 문학에 대하여는 여전히 집착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던 때였다. 그때는 문학에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풍부하고 있었다.

마침 이러한 즈음에 나는 발레리를 읽게 되었다. 발레리의 명징(明證)한 지성, 문학에 대한 그의 순수하고도 진지한 태도, 서구적인 불안 상황에 대하는 현철한 그의 정신 등이 곧 나로 하여금 그에게 이끌리게 하였다. 이래로 나는 발레리를 탐독(耽讀)하였다. 자기가 좋아하는 서적이나 작가에게 심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서책이란 이러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은 자기의 기호에 의하여 독서하고 읽는 그것에서 조금씩의 양식을 얻어 자기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라고 발레리도 말하였다.

따라서 세상에서 내가 발레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데는 전혀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니다. 내 초기의 작품, 특히 에세이류에 있어서는 발레리 취향의 편린이 엿보인다. 1938년에 발표한 「떼스뜨씨고(考)」 같은 것은 지금 읽어

보면 습작기의 생경한 문장에 얼굴을 붉힐 정도다. 그러나 발레리의 영향은 나의 한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근원적으로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 몸에 배도록 젖어 온 전통적인 교양이 훨씬 폭넓게 투영되어 있다고 해야 하겠다. 나는 우리나라에 흔한 낡은 유가儒家에서 태어났다. 나의 유년시절은 거의 경서와 당시唐詩와 선인先人의 보학설화譜學說話 속에서 지냈다. 나는 서고에 가득 찬 묵은 곱판 내 나고 종이 먹은 커다란 판박이 책과 수사본手寫本의 서적더미 속에서 자랐다. 우리네 가정교육이란 거의 천편일률적이다. 학문에 있어서는 주자朱子를, 시에 있어서는 두보를, 문文에 있어서는 한퇴지韓退之를 배우는 일이다. 일상 생활 범절은 엄격한 규범에 의하여 통제되어 있었다. 나는 이 낡은 인습의 중압에 고민하였고, 또 나 자신을 반역아反逆兒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정통적인 학문보다는 도리어 노장老莊에 경도했으며 시에 뜻을 두게 되었다.

중학(당시엔 고등보통학교라고 부름)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서양의 문학서적들을 대하게 되었다. 로망 로랑을 읽고 이상주의를 배웠고, 투르게네프를 읽고 허무주의를 알았다. 입센을 읽고 근대적 저항을 배웠다. 모두 일본어로 된 역본이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대로 바이런을 읽고 괴테를 읽고 보들레르 등을 읽었다. 좌익 문화 서적들도 읽었다. 이것은 그 당시 대 유행이었던 것이다.

내가 사유思惟와 행동에 대하여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지각하고 전통과 썰은 것에 대하여 내적 충격을 느끼게 된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 마침 이러한 때에 나는 발레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만, 내가 발레리를 읽게 된 것도 말하자면 나의 내부의 변뇌의 결과이다. 나는 지식과 사상의 혼란한 조류에 떠서 난과한 배처럼 어느 지주(砥柱)를 찾고 있었던 셈이다. 내가 발레리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의 사상이 아니라 전통과 진보에 대한 그의 태도, 역사와 현실에 대한 그의 자세 같은 것이었으며, 어딘가 그의 풍모에 나타나 있는 동양적인 영향의 일면, 매우 매력이 있는 그의 언어의 결정체, 미학의 이상한 섬광이었던 것이다.

그의 페스뜨 씨 계열의 산문은 거의 동양적인 행동 규범을 생각하게 하는 특히 노장에서 그가 받은 영향에서 산출된 것 같다. 발레리의 문장 가운데에 노자의 대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서구인이다. 영원히 불가사의하고 무한히 심오한 그 현묘의 세계에는 자기다운 것 이상으로 몰입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결국 합리주의적인 유럽 정신의 최후의 꽃이었다. 근대 문학의 한 완성자로서 '영원히 자기의 완성을 탐구한다'고 말한 발레리이다. 그러나 그의 자아는 서구적인 자아이지 동양적인 자아는 아닌 것이다. 그는 결코 자기 상실에 빠지는 일은 없다고 공언하였다.

나는 발레리에 대하여는 그의 작품이나 업적에 관하여 최대의 찬사와 경의를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를 좋아할수록 그에게서 이탈하려 채찍질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의 견해나 문학에 대해서는 다시 없이 매력을 느꼈으면서도 나의 바탕은 스스로 다른 영역의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도리어 자신을 발견하려 했고 자기를 탈환하려는 데에 더 힘을 썼다.

나는 발레리의 사상의 자취를 따라 서구의 고전들을 섭렵하였다. 데카르트·파스칼·아리스토텔레스·플라톤·호머·밀튼·몽테뉴·셰익스피어·괴테·플루타르크·희랍 신화 등등……. 이것들은 모두 나의 두뇌에 무엇인가 보탬이 된 것들이다. 그리고 내가 동경에서 돌아올 무렵에는 입어당을 읽고 있었다.

내가 동경에서 돌아와 향가^{郷歌}에 칩거^{蟄居}하는 동안, 나는 다시 동양의 고전들을 대할 여가를 가졌다. 나는 노자나 장자도 즐겨 섭렵했지만 공자도 읽었고 맹자도 읽었다. 더 많이 유가의 글을 읽었다. 또 더 많이 당송의 문학작품들을 읽었다.

필경 우리는 동양인이다. 그러나 지구의 이 중요한 부분에서 남겨놓은 문화의 축적, 아니 우리나라만의 학문이나 시가의 유산만도 한평생 읽기에는 벅차다. 신라 시가를 계통적으로 열독^{閱讀}해 보려고 생각한 것도 이때에 와서였다.

결국 나는 한시^{漢詩}의 먼지더미 속에서 자라나서 서구의 시가의 바다를 여행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서성이고 있는 셈이다. 나는 지금 시와 우리말 기능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정신을 팔고 있다. 그리고 시에 있어서는 두

보를 가르쳐 온 우리 선인들의 현명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것이다. 두보야말로 시가 사회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지고지순(至高至純)한 언어예술로서 전형을 보여 준 유일한 시인이다. 언어가 사람을 놀래지 않고서는 말지 않는다던 두보의 그 만들어진 시가 불가사의하게도 지금의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두보에 대비하면 이백은 천성적이었다. 지금 새삼 생각하는 것이지만 과연 시가 이백과 두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었던가 하는 심경에 나는 다시 젖어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고정관념 같은 것은 싫어한다. 변화무궁한 사물에 어느 단정을 내리기보다는 무정견(無定見)하기를 바란다. 노자적인·장자적인, 또는 어느 의미에서 발레리적인 그들에게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애의 사상이요 독자의 사상이요 창조의 사상이다.

궁극에 있어서 한 작가의 작품은 그의 경험이나 지식의 총화의 소산인 것이다.

신석초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石艸詩文集

■
발행 / 2013년 10월 4일

■
펴낸 곳 / 서천문화원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176-2

☎ (041) 953-0123

■
인쇄처 / 분지출판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20번길 15-7(오정동)

☎ (042)623-6591